



부사적(Adverbial) 신앙 품기 ‘어떻게’ 살 것인가

비전 선언문 예배 시리즈

기획 노트 • 설교 노트 • 음악 노트 • 예식 자료
봉헌 기도 • 어린이 메시지 • 청소년 메시지 • 소그룹

**연합감리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 공동체와 전 세계에서 담대히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웁니다.**

서론

2025년 5월, 연합감리교회 감독회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사랑, 섬김, 인도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에는 단순히 단어 그 이상의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하라는 부름을 넘어 ‘담대하게’ 사랑하라는 초대를 받았고,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섬기며, 그저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용기 있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청받습니다. 문장에서 행동을 수식하는 이 ‘부사’들은 선언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불꽃과 같습니다. 이번 소그룹 모임을 통해 이 부사적 초대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믿음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삶의 태도로 피어나는 부사적 신앙을 기쁘게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1주 | 4월 12일—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 제자들

기획 노트

초점 본문: 시편 119:1~8, 에베소서 4:11~16, 누가복음 5:1~11

이 기획 노트에는 예배에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날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예전에 대한 성찰, 예배 가운데 연합감리교회의 연결성과 신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들, 주중에도 지속적인 참여를 격려하는 제자도로의 부름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제자도로의 부름은 주보, 스크린, 주간 뉴스레터에 포함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번 첫 주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 내린 제자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따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따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리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웨슬리안 전통 안에서 우리는 이 성장을 성화는총(sanctifying grace)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곧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와 사역이—우리의 협력 속에서—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도는 주일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일어납니다! 이 시리즈 예배를 기획하기 시작할 때, 시리즈 전체를 통해 회중이 부사적 신앙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감으로 만나는 경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리즈를 관통하도록 인도해 줄 노래는 무엇일까요? 매주 포함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마음의 노래”가 있나요? 혹은 시리즈를 통해 새 찬송을 소개하고, 6주 동안 반복하며 쌓아 올려서, 시리즈가 끝날 즈음 회중에게 “새 마음의 노래”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찬송들은 특정 예배나 시리즈에 맞게 가사를 바꾸거나 덧붙이기에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 구조의 노래인 “Guide My Feet”을 사용하되, 매주 한 절씩 다음과 같이 덧붙일 수 있습니다.

- “Guide our feet to love boldly (x3) / For we do want to love boldly”
- “Guide our hands to serve joyfully (x3) / For we do want to serve joyfully”
- “Guide our hearts to lead courageously (x3) / For we do want to lead courageously”

마지막으로, 시리즈 전체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몸으로 드리는 의식을 무엇으로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성찬을 거행할 수도 있고, 5주 또는 6주에 세례 언약 갱신(세례 재확인)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중 규모에 따라, 매주 포스트잇(Post-It)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가지고 갈 것 한 가지”를 적게 한 뒤, 예배 중에 제단이나 보드에 붙이게 하는 ‘성찰 의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부사적 신앙으로 살라’는 부름을 사람들이 듣고, 보고, 온전히 몸으로 살아내도록 돕는 기회를 상상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제자도로의 부름

이번 주에는 The Endowment for Theological Education 웹사이트(<https://www.endowftecc.org/>)를 살펴볼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에 주목하고, 어떻게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나요?

리사 핸콕(Lisa Hancock) 박사는 예배 예술 사역(Worship Arts Ministries) 디렉터로서, 과거 북서텍사스연회와와 북텍사스연회(현 통합 전 연회) 소속 연합감리교회들에서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퍼킨스신학대학원(Perkins School of Theology)에서 예배 음악 석사(Master of Sacred Music)와 신학 석사(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학위를 받은 뒤, 남감리교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리스도론, 장애(disability), 속죄론(atonement)을 주제로 연구하고 집필했습니다. 또한 “Growing in Grace: Accessible Worship for All God’s Children”(은혜 안에서 자라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예배) 이니셔티브의 공동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초점 본문: 시편 119:1~8, 에베소서 4:11~16, 누가복음 5:1~11

“깊은 데로 가서...”(누가복음 5:4, NRSV) — 이것이 예수께서 시몬에게 던지신 제자도(제자 됨)의 초대입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겉면, 얇은 물가, 표면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마주치는 깊은 쟁점들, 깊은 문제들, 깊은 상황들 속으로 뛰어들 의지도 능력도 없는 신앙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 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본문에서 비슷한 울림을 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 온갖 교훈의 바람에 밀려 요동하며...”(에베소서 4:14, NRSV). 그리고 그는 더 깊은 물로 우리를 데려가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위험하고 또한 ‘관여’를 요구합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일은 여러 방식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만큼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깊이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진리를 말할 때, 정죄가 아니라 화해를 위해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더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우리의 진리’가 아니라,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에게서 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제자로 사는 기쁨입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깊은 물로,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 삶의 깊은 물로, 홀로 길을 뚫고 들어가라고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분은 배 안에도 계시고, 그물이 던져질 때도 계시며, 진리를 선포할 때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살아 들어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이신 분을 향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며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그 삶의 법칙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법이 곧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율법, 우리의 궁극적 기쁨의 근원은, 법전처럼 정리된 조항들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를 때, 우리 삶을 그분의 삶에 맞출 때, 그분이 누구셨고 지금 누구이신지에 대한 비전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살아냅니다(성육신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나라를 몸으로 살아냅니다. 그분의 kin-dom(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을, 그리스도와 서로의 관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때,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자랍니다. 이것은 본문이 드러내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 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가운데에도, 그분의 길을 걸으며—때로 넘어지기도 하면서—우리는 머리이신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와 사명’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완성된 다음에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서 행합니다. 자라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인도합니다.

물론 제자가 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은 그중 몇 가지를—따르는 이들의 역할들을—열거합니다. 이것은 전부를 다 나열한 목록이 아니라 리더십의 예시입니다. 또한 그 역할들이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공동체를 만들고, 초대하고, 포용하고, 모든 성도—길 위의 모든 제자—에게 영감을 주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기쁨은, 제자답게 살라는 비전에 단순히 ‘순종’하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 기쁨은 실제로 살아내는 것 속에 있습니다. 행함과 존재함 속에, 함께 행하고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작을 따라 하며 배울 수도 있습니다. 흉내 내고, 어떤 패턴이나 훈련을 따르며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단지 ‘동작을 수행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길에는 더 깊은 것, 더 위험한 것, 더 만족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정입니다. 혹은 다음 주에 더 이야

기할 표현으로 말하면, 부사적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를 제자도로 부르시는 그분을 따르는 선물을 기뻐합시다. 우리는 아직 자라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다른 이들도 이 제자도의 여정에 함께하라고 초대받았습니다.

초점 본문: 시편 119:1~8, 에베소서 4:11~16, 누가복음 5:1~11

주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성숙해지며, 신실한 제자도를 위해 형성되도록 내어드림

전통 찬송가 (United Methodist Hymnal)

- 주 예수 내게 오라 하시네 (Jesus Calls Us, UMH 398)
- 나 여기 있사오니 (Here I Am, Lord, UMH 593)
- 나의 생명 드리니 (Take My Life, and Let It Be, UMH 399)
-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UMH 354)
- 주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소서 (Lord, Speak to Me, UMH 463)
- 주 예수 내가 약속하기를 (O Jesus, I Have Promised, UMH 396)

The Faith We Sing (TFWS) / UMH

- 나를 부르시는 주님 (The Summons, TFWS 2130)
-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UMH 402)
- 거룩하신 성령이여 (Holy Spirit, Truth Divine, UMH 465)
- 흑인 영가 및 복음성가 / Gospel
-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TFWS 2129)
- 내 머리 위 하늘의 음악 소리 (Over My Head, I Hear Music in the Air)
- 우리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네 (We've Come This Far by Faith)
- 예수님 나와 함께 걷기 원하네 (I Want Jesus to Walk with Me, UMH 521)

글로벌 찬양

-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Jesu Tawa Pano – 짐바브웨)
- 오소서 모든 사람들이여 (Uyai Mose – 짐바브웨)
-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O-So-So / Come Now, O Prince of Peace – 한국)

Songs of Zion (SOZ) 수록곡

- 예수여, 나를 십자가 곁에 머물게 하소서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SOZ 19)
- 우리는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네 (We Are Climbing Jacob's Ladder, SOZ 205)

현대 예배곡 (CCLI)

- 주 날 물 위로 부르셨네 (Oceans – Hillsong UNITED)
- 그 길을 따라 (I Will Follow – Chris Tomlin)
- 나의 생명 드리니 (Take My Life – Chris Tomlin)
- 내 영혼아 깨어라 (Awake My Soul – Hillsong Worship)
- 내 주위에 그리스도 계시네 (Christ Be All Around Me – All Sons & Daughters)

초점 본문: 시편 119:1~8, 에베소서 4:11~16, 누가복음 5:1~11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의 해변과
소외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회중: 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빚으시는 주님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Written by Dr. Lisa Hancock, Discipleship Ministries, January 2026

개회 기도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인도를 받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욱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Written by Dr. Lisa Hancock, Discipleship Ministries, January 2026.

고백의 기도

일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소망과 공동체 정신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사랑 없이 말하거나 겸손 없이 행동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의 은혜라는 생수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인내와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는 주님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교회를 강건하게 하셔서,
온 세상이 바라보는 사역과 일치의 모델이 되게 하소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기도)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일치와 성숙함 안에서 자라나도록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Adapted from The Abingdon Worship Annual 2009, © 2008
Abingdon Press. Posted on the Ministry Matters website,
<http://www.ministrymatters.com>.*

파송의 말씀

여러분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하나님
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며 끝까지
나아갈 인내를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로 살아가겠다는 고백 위에 주님의 복이 함께하시길 축원
합니다. 아멘.

Written by Dr. Lisa Hancock, Discipleship Ministries, January 2026.

제1주 | 4월 12일—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 제자들

봉헌 기도

초점 본문: 시편 119:1~8, 에베소서 4:11~16, 누가복음 5:1~11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여, 주님은 얇은 물가에 머물던 우리를 깊은 데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은 확신 대신 신뢰가 자리하고, 순종이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이 예를 드리며, 우리는 제자의 삶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그 이상임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위험과 진실, 사랑 속으로 주님을 따라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것을 받으시어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소서. 찢어진 그물을 고치고, 긍휼함으로 진리를 말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소서. 우리가 배우고 넘어지며 자라가는 이 여정의 배 위에 우리와 함께하소서. 이 봉헌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늘 가족 공동체의 깊고 생명력 넘치는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5:1~11)

제1주 | 4월 12일—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 제자들

어린이 메시지

초점 본문: 시편 119:1~8, 에베소서 4:11~16, 누가복음 5:1~11

준비물

발자국 모양 종이(또는 바닥에 테이프로 만든 길), 작은 장난감 그물 또는 바구니, 작은 ‘씨앗’류 품목 (종이 씨앗이나 콩깍지)

메시지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우리 마음과 행동이 더 튼튼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선생님이 재미있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먼저 바닥에 있는 이 길을 보세요. 누가 이 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걸 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이 발자국이나 테이프로 붙인 길을 따라 걷게 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길을 따라 잘 걷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잠시 기다린 후: 조심조심 살피기, 균형 잡기, 천천히 걷기 등) 맞아요! 길을 따라 천천히, 조심조심 걷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과 같아요. 연습이 필요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야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인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새도록 일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부들은 피곤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답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인내와 신뢰를 키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친절과 사랑을 연습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라간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얻고 바른 선택을 하며 자라나도록 돕고 싶어 하세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은사)을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도록 도와주지요. 생일에 받는 장난감이나 사탕과는 달라요. 대신 여러분의 손과 마음,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예요.

-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 친구와 가족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 그림을 그려주거나 내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웃게 해주는 것
- 진실을 말하고, 안아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생일 선물은 장난감, 책 혹은 간식처럼 여러분이 즐기기 위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사)은 친절, 인내, 용기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기억하세요. 생일 선물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물을 사용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서로가 자라나도록 도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재미있는 놀이를 해봐요. 이 작은 ‘씨앗’들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손에 쥐어보세요.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잠시 기다린 후: 싹이 나고, 키가 커지고, 튼튼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기쁨도 쑥쑥 자라난답니다.

다 같이 씨앗을 심는 흉내를 내볼까요? 손가락을 꿈지락거리 씨앗을 ‘흙’으로 덮어주고, 이제 자라나는 식물처럼 키를 쭉 늘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더 튼튼해지는 게 느껴지나요?

오늘 우리는 ‘자라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을 따라 해 볼까요? “자라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 매일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
- 나의 특별한 선물(은사)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 생일 선물은 즐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나눠요!
- 친절과 인내, 사랑을 연습하는 것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길을 걸어보아요.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매일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거예요!”

축복 기도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것처럼 두 손을 모아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담대하게 사랑하게 하시길 빕니다.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여러분을 격려하여 기쁘게 섬기게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길 빕니다.

담대하게 사랑하십시오. 기쁘게 섬기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아멘.

주간 활동: 가족 대화 가이드 및 활동

이 질문들과 활동들은 가족이 한 주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기도하며 주일에 나눈 어린이 메시지를 가정에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차 안에서, 혹은 잠들기 전 등 가족이 모이는 어느 때나 활용해 보세요.

주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납니다.

대화 나누기

- 오늘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 것 같나요?
- 이번 주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가족 활동

1. 키와 마음 재보기

벽에 아이를 세우고 테이프나 연필로 키를 표시해 보세요.

몸이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마음도 자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

- “몸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기도, 친절, 배움, 사랑 등)

함께 외쳐요

“예수님은 매일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2. 축복이 가득한 그물

작은 바구니나 그릇, 혹은 장난감 그물을 준비하세요.

한 주 동안 우리 가족이 발견한 하나님의 손길(도움, 배움, 경청, 용서 등)을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그물에 담아보세요.

주말에 가득 찬 그물을 보며 함께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이나 자라게 하셨네!”

3. ‘쑥쑥 자라요’

그림이나 단어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한 표를 만들어 보세요.

- 기도하기
- 친절 베풀기
- 다른 사람 도와주기
- 경청하기
- 배우기

매일 아이가 실천한 항목 옆에 스티커를 붙이게 해주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조금씩 꾸준히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주의 기도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담대하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초점 본문: 시편 119:1~8, 에베소서 4:11~16, 누가복음 5:1~11

인도자를 위한 안내

이 수업의 핵심 문구는 “[...] 그들이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느니라”입니다. 이 수업의 요지는 부정적 감정이나 거부감이 더 큰 비전만큼 효과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만(불평)에서 비롯된 열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 곧 세워 주고, 추진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 열기는 청소년들이 간단한 동작 패턴을 따라 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방해 요소들에 주목하도록 돕습니다. 이어지는 토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어 가는지 성찰하도록 이끍니다. 체험 활동은 성장선에 참여하여 제자도 안에서의 성장을 점검하도록 초대합니다. 시간 배치는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했으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열린 공간
- 선의 양 끝을 표시할 마스킹 테이프 (선택)

마음 열기

10분 패턴 따라 하기

모두가 느슨한 원을 이루어 서게 하십시오. 진행자가 ‘박수 치기, 손가락 튕기기, 발 구르기’ 같은 단순한 동작 패턴을 시작합니다. 오른쪽 사람은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 하고, 그다음 사람도 반복하여, 패턴이 원을 돌아 다시 진행자에게 돌아올 때까지 이어갑니다. 만약 누군가 정확히 따라 하지 못하면, 동작 패턴은 원의 맨 처음 학생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패턴이 진행자에게 되돌아올 때마다, 진행자는 말없이 (그리고 아주 살짝) 패턴을 바꿉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그룹의 과제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맞추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1분 정도 진행한 뒤 잠시 멈추고,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알아차리는 느낌과 계속 따라가려 애쓰는 느낌이 어땠는지 간단히 묻습니다.

그룹 안에 다양한 신체적·인지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동작 패턴을 선택하십시오.

성경 읽기

5분 읽기: 누가복음 5:1~11

토의 질문

10분

-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또렷이 기억하는 세부 장면은 무엇인가요?
- 예수님이 시키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베드로는 확신이 없는데도, 왜 예수님의 제안대로 한번 해 보려고 했다고 생각하나요?
- 이야기 끝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제자가 되어 가는지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나요?
- 여러분 또래의 누군가가 시간이 지나며 예수님을 더 닮아 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 갈 수록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을까요?

체험 활동

20분 성장선 (Growth Line)

방 안에 길게 열린 공간을 만드십시오. 공간의 한쪽 끝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를 나타내고, 다른 끝은 “확신이 있고 흔들림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진행자는 아래 예시와 같은 지시 사항들을 한 번에 하나씩 읽어주고, 학생들이 각자 말없이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지점에 서도록 초대하십시오. 이 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성장의 과정이며, 제자도는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십시오.

몇 개의 질문을 마친 후, 잠시 시간을 내어 그룹 전체가 함께 되돌아봅니다.

1. 여러분이 선 위에서 서 있던 위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어땠나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2. 어떤 질문은 예상보다 더 한쪽 끝으로 이동하고 싶게 만들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나요?
3. 성장을 시간 속에서 이동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지시 사항 예시

- 자신이 성공할지 확신이 없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
- 어른이나 멘토의 조언에 귀 기울이기
-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직감 신뢰하기
- 답답하거나 지루해도 어떤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
-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기
- 내가 실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인내심 갖기
- 중요한 일에 대해 마음을 바꿀 가능성에 열려 있기
- 교회나 청소년부 밖에서도 신앙/영성 실천하기
- 실수했을 때 책임지기
- 아직도 많은 것을 알아가는 중임을 깨닫기
- 인기가 없더라도 옳다고 느끼는 일 하기
-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기보다 도움 요청하기
- 내 속도대로 자라가도록 자신을 스스로 허락하기
- 주중에 친절과 연민을 실천하려 애쓰기
- 성장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신뢰하기

기도

5분 여러분 그룹의 전통이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모임을 마치십시오.

제1주 | 4월 12일—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 제자들

소그룹

초점 본문: 시편 119:1~8, 에베소서 4:11~16, 누가복음 5:1~11

교제

다과 또는 식사 (다과가 있으면 10분; 식사가 있으면 더 길게)

모임 준비 시간 (5~10분)

참여자들을 2~3명씩 소그룹으로 나누고 다음을 질문합니다: “제자”가 하는 일 (또는 모습) 두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본인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룹 대화 (약 30분)

아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본문을 읽습니다. 시편 119:1~8, 에베소서 4:11~16, 누가복음 5:1~11

- 누가복음 5장 1~1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 »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눈에 띄나요? ‘곧 제자가 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 »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누가복음 5:4, NRSVUE). 이는 삶의 더 “깊고,” 더 도전적인 측면에 가까이 참여하라는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더 깊은 물”로 들어가고 있나요?
 -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물”로 들어가라는 초대를 하셨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초대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 에베소서 4장 11~16절을 읽으십시오.
 - » 이 본문의 첫 두 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셨다고 말하는 다섯 가지 영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전도자), 목자(목회자), 교사]
 - 이 은사들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은사의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은사들이 작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 성숙함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13절)의 한 요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보았거나 혹은 스스로 잘 해냈던 때는 언제였나요?
- 시편 119편을 읽으십시오. 이 본문에서 어떤 감정이 표현되고 있나요? 그 감정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인가요 (시편 기자에게 어떤 계기가 있나요)?
 - » 이 시편을 ‘제자로 성장한다’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 이번 주 설교 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로 사는 기쁨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의 깊은 물 속으로 홀로 나아가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분은 배 안에도 계시고, 그물이 던져질 때도 계시며, 진리가 선포될 때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살아 들어갑니다.”

 - » 여러분은 “깊은 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 **딱 한 가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더 자라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개인 심화 묵상:** 이번 주에는 아래의 패턴으로 선택 본문 중 하나를 공부해 보십시오.
 - »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시편 119:18).
 - » 본문(시편 119편, 누가복음 5:1~11, 또는 에베소서 4:11~16)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 » 본문에서 무엇이 눈에 띄나요?
 - » 어떤 질문이 떠오르나요?
 - »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나요?

기도 (10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황에 맞게 함께 기도합니다.

파송 (2분)

다음 기도, 또는 이와 비슷한 기도, 혹은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부르시는 뜻을 늘 분명히 이해하지 못함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예”라고 응답하게 도와주소서.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말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빚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신실하게 걸어가며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삶으로 자라 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 훈련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https://www.umcdiscipleship.org/subscribe>

애슐리 앨리 크로포드(Rev. Dr. Ashlee Alley Crawford) 박사는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장년 사역 담당 디렉터이며,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 소속 목사입니다.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에서 12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섬겼고, 10년 이상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고 격려하는 일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즈베리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으며, 제자사역부(Discipleship Ministries)의 제자 코칭(Discipleship Coaching)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점 본문: 시편 16편, 요한복음 10:10, 골로새서 2:6~10

부사적 신앙: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주에 논의했듯이, 이 시리즈는 우리가 길 위의 제자들로서 신앙을 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자라나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하게, 기쁘게, 용기 있게—이 단어들은 예배 안에서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부사들은 방향, 성격,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사랑·섬김·인도함과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랑·섬김·인도함을 구별해 줍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의 대비를 강조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접근을 권합니다. 이번 “부사적 신앙 품기” 2주 차에서는 대비를 잠시 잊어버리고, 현실에 집중해 보십시오. 부사적으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향기가 나고, 어떤 소리가 나며, 어떤 맛이 나고, 어떤 감촉으로 느껴질까요? ‘부사적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우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형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걷는 이 담대하고, 기쁘고, 용기 있는 여정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을 빚어 왔나요? 여러분이 듣거나 부르거나 기억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나 노래 혹은 성경 본문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와 노래를 떠올리기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제자도의 길을 함께 걸기로 헌신하는 날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교회를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와 연결해 주는 이야기와 노래는 무엇인가요? ‘기적의 주일’(Miracle Sunday)로 나아가며, 이 기회를 통해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의 삶과 증언을 나누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Wa Wa Wa Emimimo”(Come, O Holy Spirit, Come; *The Faith We Sing* 2124)를 부르며 패트릭 마치케네이리(Patrick Matsikenyiri)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성찬을 거행한다면, 중서부 필리핀 연회(West Middle Philippines Annual Conference) 잠발레스 지방(Zambales District) 빌라르연합감리교회(Villar United Methodist Church)의 ‘토착화된 성찬’ 접근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공 상태’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와 장소, 언어와 전통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노래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세계 곳곳의 형제자매들 이야기를 나눌 때, 세계 교회와의 연결을 더 단단히 하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 제자로 빚어지도록 마음을 엽니다.

제자도로의 부름

이번 주에는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떼어, 신학 교육을 추구하는 전 세계 연합감리교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 계속되는 성령의 부르심을 위해, 연합감리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계속 형성되어 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리사 핸콕(Lisa Hancock) 박사는 예배 예술 사역(Worship Arts Ministries) 디렉터로서, 과거 북서텍사스연회와 북텍사스연회(현 통합 전 연회) 소속 연합감리교회들에서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퍼킨스신학대학원(Perkins School of Theology)에서 예배 음악 석사(Master of Sacred Music)와 신학 석사(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학위를 받은 뒤, 남감리교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리스도론, 장애(disability), 속죄론(atonement)을 주제로 연구하고 집필했습니다. 또한 “Growing in Grace: Accessible Worship for All God’s Children”(은혜 안에서 자라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예배) 이니셔티브의 공동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초점 본문: 시편 16편, 요한복음 10:10, 골로새서 2:6~10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어색하게 들리나요?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묻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이해하려 하고, 검토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마치 정의만 제대로 세우면 모두가 동의할 것처럼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지’ 확인하려 하고, 어떤 신앙이 ‘진짜’인지 분별하려 합니다. 물론 정통성은 중요합니다. 바른 생각, 신학적 사고, 사상과 관념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합니다. 생각합니다. 분석하고, 분해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한 살아냅니다.

신앙은 머릿속에만 머물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 존재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살아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삶’에도 여러 결이 있습니다. 숨 쉬고, 움직이고,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고, 맥박을 유지하는 것이 ‘삶’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날에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루의 짐, 사회의 잔해, 나라들의 고통, 우리가 짊어진 어떤 무게 때문에, 그저 한 발 한 발 옮기며 버티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말이 오히려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종일 행복해야 한다”라는 식의 얇은 신앙은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를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존처럼 보이는 삶’을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시에,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더 큰 무언가는 ‘영원’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시작되는 영원만이 아니라, 이 삶에서 지금 시작되는 영원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파이 먹는다”(pie-in-the-sky-when-you-die)라는 식의 말만 내놓고 사람들이 그것에 줄을 서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약속을 품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0:10b, NRSV).

풍성히 — 부사, 1. 매우, 2. 풍부하게; 풍성히

(「Collins English Dictionary — Complete & Unabridged」 2012 Digital Edition, ©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1979, 1986; © HarperCollins Publishers 1998, 2000, 2003, 2005, 2006, 2007, 2009, 2012)

연합감리교회의 감독들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열정의 삶, 담대함과 기쁨과 용기의 삶을 살아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부사적 신앙”이라 부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로서 섬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쁘게 섬기라는 초대장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곧 kin-dom의 삶에는 인도하는 이들이 필요함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용기 있게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사적 신앙은 동역(파트너십)입니다. 시편 16편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부사적 신앙이 자라나는 동역의 모습을 그려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첫 외침은 보호와 피난처를 구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자라고 필요가 변해 가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도록 주어진 ‘율법’이 묘사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존재의 비전은 고귀함과 기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들, 그 ‘선’이 이제는 아름답게 보이며, 율법을 주신 분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동행자, 마음의 친구가 됩니다.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고, 거기서 안전을 발견합니다. 믿음 공동체의 일부로, ‘고귀한 이들’의 일부로 살아간다는 정의 안에서 말입니다. 마침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이릅니다. 피난처가 필요하던 자리에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시편 기자는 이 짧은 열한 절 안에 그 여정을 담아냅니다.

이 시편의 중심에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으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시편 16:7, NRSV). 우리는 이 훈계를 제공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압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의 사역 중 하나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능력을 주어 인도하고 이끄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시

편 기자가 말하듯, 우리의 몫은 주님—곧 성령—을 항상 우리 앞에 두는 것입니다(시편 16:8, NRSV).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 발을 길 위에 세우고, 눈을 ‘목표’에 두게 하십니다. 그 목표란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령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 마음은 기쁘고 영혼은 즐거워하며, 우리의 몸도 안전하게 거합니다(시편 16:9, NRSV).

이 삶은 단지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비록 그것이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이제는 더 좋은 것,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열정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가져다주는 삶입니다. 투쟁이나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충만함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시편 16:10의 흐름) —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벼랑 끝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동행하시고, 전적인 파괴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생명의 길이 드러나고, 제시됩니다.

골로새서도 비슷한 ‘충만으로의 성장’을 말합니다. 이 편지의 저자가 바울인지 디모데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저자는 독자들—우리—에게 신앙은 과정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선물처럼 ‘받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자라납니다. 주어진 것은 뿌리내리거나, 세워지거나—여기서 어떤 비유를 써야 할지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우리 안에서 자라거나 구축되고, 우리 밖으로 빛을 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충만을 향해 세워지고, 자라며, 따르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충만을 반사합니다.

경고도 주목하십시오. 초대는 ‘텅 빔’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 충만을 앗아가고, 약화하고, 빛을 누르고, 성장을 멈추게 하고, 건축을 방해하는 것—각자 원하는 비유로 표현해도 좋습니다—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속임수의 이름을 굳이 다 대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죽이는지 압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을 고갈시키는지 압니다.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고 상처 입히며, 우리가 세우려는 것을 무너뜨리는지 압니다. 어떤 때는 내 안에서 시작하고, 어떤 때는 열 추적 미사일처럼 날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피해 가지만, 어떤 때는 포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피난처를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부사적 신앙’에 기대어 몸을 기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만은 ‘우리의 충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임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강점이나 약점, 은사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문제입니다. 은사와 강점은 관계의 부산물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우고 자라가는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부사적 신앙을 품고, 더 깊게, 더 크게, 더 넓게 살아갑니다. 부사를 고르십시오. 개인으로서 때로 선택하고, 공동체로서 또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규정하는 부사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독들은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무하고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사를 선택할 때, 그중 하나는 반드시 “함께”(corporately)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함께입니다. 골로새서 본문의 “너희”는 복수입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 부사적 신앙을 혼자 살아가도록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를 함께 이끌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말입니다.

설교 사역 디렉터인 데릭 웨버 목사는 인디애나, 아칸소, 영국 감리교회에서 목회했으며,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설교학 및 미디어로 박사 (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20년 이상 신학교와 연회 사역 현장에서 설교를 가르쳐 왔습니다.

제2주 | 4월 19일—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

음악 노트

초점 본문: 시편 16편, 요한복음 10:10, 골로새서 2:6~10

주제: 충만하고 풍성하며 전 존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

전통 찬송가

- 하나님의 크신 사랑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UMH 384)
-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UMH 400)
- 기뻐하며 경배하세 (Joyful, Joyful, We Adore Thee, UMH 89)

TFWS / Worship and Song (W&S)

- 함께 주를 섬기리 (Together We Serve, TFWS 2175)
- 지금은 예배할 때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 W&S 3176)

흑인 영가 및 복음성가 / Gospel

- 내 마음속에 성령 임할 때마다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UMH 404)
- 그는 온 세상을 손에 쥐고 계시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 주님 쓰시도록 나 살리라 (I'm Gonna Live So God Can Use Me, TFWS 2153)
- 목소리 높여 노래하라 (Lift Every Voice and Sing, UMH 519)

~

글로벌 찬양

- 할레 할레 할렐루야 (Halle, Halle, Hallelujah - 카리브해)
- 주를 찬양하라 (Cantemos al Senor - 라틴 아메리카)
- 거룩 거룩 거룩 (Santo, Santo, Santo - 아르헨티나 전통곡)

Songs of Zion (SOZ) 수록곡

- 광야에서 나오라 (Come Out the Wilderness, SOZ 136)
- 넉넉한 자리가 있네 (Plenty Good Room, SOZ 99)
- 오, 내가 예수를 사랑함은 (Oh, How I Love Jesus, SOZ 36)

현대 예배곡 (CCLI)

-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 Bethel Music)
- 나의 예(Yes)를 주께 (Yes I Will - Vertical Worship)
- 내 삶 주께 드리네 (Build My Life - Pat Barrett)

초점 본문: 시편 16편, 요한복음 10:10, 골로새서 2:6~10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지혜와
행동할 용기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Written by Dr. Lisa Hancock, Discipleship Ministries, January 2026

개회 기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비전을 주소서.
정의를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주소서.
지리적 경계나 인종, 종교에 갇히지 않는 평화의 꿈을 꾸
게 하시고,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이라는 한계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섬기라 하시고, 나누라 하시고, 찬양하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 나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아멘.

*Adapted from the Monthly Prayers page of the Christian Aid web-
site, <http://www.christianaid.org.uk>. Reposted on the re:Worship
blog at [https://re-worship.blogspot.com/2017/04/prayer-vision-of-
abundant-life.html](https://re-worship.blogspot.com/2017/04/prayer-vision-of-abundant-life.html).*

고백의 기도

단비와 따뜻한 햇살로 성장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빠르게 자라다가도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존재들입니다.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 묶인 밧줄을 끊으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방식들로
얽매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포로 생활과 귀향의 하나님,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저희가 이 여정을 떠날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 길을 신뢰
하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몸과 마음이 상하여 치유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제시하시고 공동체의 법도를 주
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법도를 어기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성장을 찬양하며, 자유케 됨을 기뻐합니다.
집으로 인도하는 그 길 위에서 춤을 추며,
우리가 받은 치유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이제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Written by Rev. Gord and posted on Worship Offerings, [http://
worshipofferings.blogspot.ca/](http://worshipofferings.blogspot.ca/). Reposted on the re:Worship blog
at [https://re-worship.blogspot.com/2013/07/a-summer-prayer-for-
grace.html](https://re-worship.blogspot.com/2013/07/a-summer-prayer-for-grace.html).*

파송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 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
에게 능력과 영감을 주시는 성령의 복을 안고 세상으로 나
아가십시오. 아멘.

제2주 | 4월 19일—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

봉헌 기도

초점 본문: 시편 16편, 요한복음 10:10, 골로새서 2:6~10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넘쳐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부르십니다. 홀로 걷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인색함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쁜 응답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과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며, 주님 안에 더 큰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심으시고 세우시며, 우리를 담대하고 기쁜 제자로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으며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주 | 4월 19일—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

어린이 메시지

초점 본문: 시편 16편, 요한복음 10:10, 골로새서 2:6~10

핵심 부사: 신실하게

준비물

바닥에 테이프나 리본으로 만든 길, “예수님의 길”이라고 적힌 표지판, 발자국 모양 종이

메시지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재미있는 길을 준비했어요. 바닥에 있는 이 길이 보이나요? 지난주에 했던 것 기억나나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안 해본 친구 중에서 누가 이 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걸어볼까요?

(두세 명의 아이들을 선발해 천천히 길을 걷게 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길 위를 잘 걷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나요? (잠시 기다린 후: “잘 보기,” “균형 잡기,” “천천히 가기” 등) 맞아요! 그 모든 노력이 여러분을 길 위에 있게 해주었죠.

이 길은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해요. 시편 1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해요. 이 테이프 길이 우리가 어디를 밟아야 할지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기분이 어떤가요?

골로새서 2장 6~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뿌리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바로 나무죠! 크고 튼튼한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된 것처럼 흥내 내 볼까요?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발을 움직이며 나무 흥내를 냅니다.)

여러분은 정말 멋진 나무들이네요! 뿌리는 나무를 튼튼하게 지켜주죠.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매주 특별한 단어를 하나씩 배울 거예요. 그 단어들을 ‘부사’라고 불러요. 따라 해 볼까요? “부사!”

단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해 줄게요.

‘동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몇 가지 동작들을 생각해 봅시다: 점프할 수 있나요? 박수칠 수 있나요? 손을 흔들 수 있나요?

(폴짝 뛰기, 박수 치기, 손 흔들기 등을 함께 해봅니다.)

좋아요! ‘점프하기,’ ‘손뼉 치기,’ ‘손 흔들기’는 동사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반면에 ‘부사’는 그 행동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뛰면, ‘빠르게’ 뛸 수 있죠.
우리가 손뼉을 치면, ‘크게’ 칠 수 있어요.
우리가 걸으면, ‘천천히’ 걸을 수 있고요.

여기서 ‘빠르게,’ ‘크게,’ ‘천천히’가 바로 부사예요.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는 선물 같은 단어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따르다’라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동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준 뒤)

우리는 예수님을...신실하게 따라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산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 매일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 친절을 선택하려고 애쓰는 것
-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 실수해서 길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길 위로 돌아오는 것

이제 다 같이 길을 천천히 걸어볼까요? 우리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신다고 상상하면서 ‘신실하게’ 걸어보는 거예요.

(공간이 허락한다면, 아이들이 길을 따라 걷게 하십시오.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제자리에서 걷게 하세요.)

“우리 함께 걸으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뿌리를 기억하려고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여 봤던 것도 기억나나요?”

자, 다시 한번 발가락을 꼼지락거리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서 점점 더 단단하고 튼튼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발바닥으로 땅을 꼭 밀어내죠? 땅을 힘차게 밀어낼수록 우리는 더 빨리 걷거나 달릴 수 있어요.
멀리까지 걸어가려면 튼튼한 발이 꼭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은 어떤 기분일까요?

(대답을 기다리며...)

맞아요. 마음이 참 든든하고, 기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바로 그 행복한 마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봐요: “예수님은 제가 매일 신실하게 살도록 길을 보여주셔요!”

축복 기도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것처럼 두 손을 모아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담대하게 사랑하게 하시길 빕니다.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여러분을 격려하여 기쁘게 섬기게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 용기 있게 이끌게 하시길 빕니다.
담대하게 사랑하십시오. 기쁘게 섬기십시오. 용기 있게 이끄십시오.
아멘.

주간 활동: 가족 대화 안내와 활동

이 질문과 활동들은 가족들이 한 주간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일에 나누었던 어린이 설교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더욱 굳건히 세워 줍니다. 식탁에서, 차 안에서, 잠들기 전 — 가족이 함께하는 어떤 순간이든 활용해 보세요.

내용은 단순하고 짧으며, 열린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일상의 순간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주일에만이 아니라 한 주 내내 이어지는 것임을 가족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주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핵심 부사: 신실하게

대화 나누기

- 오늘 하루 중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 오늘 어디에서 ‘친절’을 발견했나요? 내일 당신은 어디에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위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길을 걷는 것과 같다면, 오늘 당신의 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가족 활동

1. 길 따라 걷기

집 안 바닥에 테이프로 길을 만들거나 야외에서 분필로 길을 그려보세요. 차례대로 천천히 그 길을 걸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매 발걸음마다 나와 함께하셔. 나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2. 나무 성장 게임

나무처럼 서서 ‘뿌리’(발)를 땅속으로 쑹지락거리며 넣는 흉내를 낸 뒤,
‘가지’(팔)를 하늘 높이 뻗어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우리 ‘뿌리’가 예수님 안에서 튼튼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3. 신실함의 병 (Faithfulness Jar)

식탁 위에 빈 병을 하나 놓아두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친절, 도움, 나눔 등)을 보일 때마다, 그 병에 구슬이나 동전을 하나씩 넣으세요. 주말에 병이 얼마나 찼는지 보며 우리 가족이 신실하게 살았던 순간들을 축하하세요!

이번 주의 기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매일매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제2주 | 4월 19일—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

청소년 메시지

초점 본문: 시편 16편, 요한복음 10:10, 골로새서 2:6~10

인도자를 위한 안내

이 수업은 믿음을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탐구합니다. 특히 담대하고, 기쁘고, 용기 있는 믿음이 현실의 삶에서 어떤 느낌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마음 열기는 말투와 행동의 작은 변화가 공동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차리게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관한 성경을 읽고, 믿음이 일상의 실천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태를 갖추는지 토의합니다.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몸을 써 협력적으로 성령이 빚어 가시는 공동체의 “모양”(shape)을 탐구하며, 부사적 신앙이 함께 살아질 때 어떤 소리/느낌/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성찰합니다.

마음 열기

10분 다르게 말해 보기

모두가 원을 이루어 서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을 하나 정합니다. 한 학생이 시작하고, 원을 돌며 각자 그 문장을 반복하되, 말하는 방식을 매번 바꿉니다(예: 확신 있게, 조용히, 신나게, 차분하게). 같은 버전은 중복할 수 없고, 각 학생은 5초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망설이거나 이전과 같은 버전을 반복하면, 그 학생은 원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진행한 뒤, 모든 학생이 다시 함께 참여하도록 새로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단어는 거의 같았는데도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나누십시오.

성경 읽기

5분 읽기: 사도행전 2:42~47

토의 질문

10분

- 초대 공동체에 대한 이 묘사에서 어떤 행동이나 실천이 기억에 남나요?
- 이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을 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해 보이나요?
- 이 본문에서 믿음이 공적으로 살아지는 방식과 사적으로 살아지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 한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지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나요? 공동체는요?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언제 전통이 되나요?
-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들을 형성하는 습관이나 리듬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의 그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더 잘 반영하려면 어떤 실천이나 습관을 더하거나 바꿀 수 있을까요?

체험 활동

20분 공동체의 정체성 구축하기

학생들을 2~3명 소그룹으로 나누고, 제시될 지시 사항들의 포즈를 취해 표현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각 지시 사항마다 그룹 포즈를 만드는 데 2분씩 주어집니다. 이 장면들은 멋진 온라인 게시물이 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단,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게시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경쟁도 아닙니다.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몸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시 사항 예시

- 서로를 위해 담대하게 곁에 서주기
- 시간이나 자원을 기쁘게 나누기
- 새로 온 사람을 용기 있게 환영하기
- 주중에도 일상에서 함께 믿음 실천하기
- 변화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기

몇 라운드 진행 후 모두 함께 모여 성찰합니다.

- 각각의 모양을 만들 때, 여러분 그룹은 어떻게 협력했나요?
- 어떤 지시 사항이 가장 쉽게 혹은 가장 어렵게 느껴졌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몸을 움직여 포즈를 취해보니, 믿음과 공동체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도

5분 여러분 그룹의 전통이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모임을 마치십시오.

제2주 | 4월 19일—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

소그룹

초점 본문: 시편 16편, 요한복음 10:10, 골로새서 2:6~10

교제

다과 또는 식사 (다과가 있으면 10분; 식사가 있으면 더 길게)

모임 준비 시간 (5~10분)

참여자들에게 묻습니다. “문법에서 부사(adverb)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부사란 “천천히,” “지금,” “매우,” “정치적으로,” “다행히”와 같이, 절 속에서 언급되는 행동·사건·상황에 대한 정보를 더 해 주는 단어입니다. (<https://www.collinsdictionary.com/us/dictionary/english/adverb>)

다시 말해, 부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2~3명씩 소그룹으로, 오늘 소그룹 모임에 오게 된 ‘방식’을 설명하는 부사를 하나 골라 보세요. 조용히, 기쁘게, 성실히(의무적으로), 조심스럽게, 기꺼이, 서둘러... 혹은 떠오르는 다른 부사도 좋습니다!

그룹 대화 (약 30분)

아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본문을 읽습니다. 시편 16편, 요한복음 10:10, 골로새서 2:6~10

- 시편 16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기자의 선포가 어떻게 ‘진행’(전개)되는지 묘사해 보세요. 시편의 시작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느끼는 것 같나요? 끝에서는 어떤가요?
 - » 시편 16편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절 또는 구절을 하나 선택할 수 있나요?
-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생명과 다른 방식의 삶을 대비하십니다. 이 구절과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풍성한 삶이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더 가깝다면, 그 삶의 성격을 가장 잘 담아내는 부사들은 무엇일까요?
 - » 이 정의에 비추어 ‘풍성한’을 느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풍성한 경험에 무엇이 이바지했나요?
- 골로새서 2장 6~10절을 읽으십시오. 이 본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세상의 영적 유혹 속에서 사는 삶을 대비합니다. 두 삶의 방식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 »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 직장, 가정에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 »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믿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나요?
 - » 이런 삶을 살아내는 데 어떤 도전이 있나요?
- 이번 주 설교 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사적 신앙을 품고 더 깊게, 더 크게, 더 넓게 살아갑니다. 부사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때로는 개인으로, 때로는 공동체로 선택합니다.”
 - »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 선택하고 싶은 부사는 무엇인가요?
 - »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에서 살아내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은 부사들은 무엇인가요?
- **딱 한 가지:** 여러분이 선택한 부사를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개인 심화 묵상: 이번 주에는 아래의 패턴으로 선택 본문 중 하나를 공부해 보십시오.
 - »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시편 119:18).
 - » 본문(시편 16편, 요한복음 10:10, 또는 골로새서 2:6~10)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 » 본문에서 무엇이 눈에 띄나요?
 - » 어떤 질문이 떠오르나요?
 - »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나요?

기도 (10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황에 맞게 함께 기도합니다.

파송 (2분)

다음 기도, 또는 이와 비슷한 기도, 혹은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을 따라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빚으셔서, 더욱 신실하게 걸어가며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 훈련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https://www.umcdiscipleship.org/subscribe>

애슐리 앨리 크로포드(Rev. Dr. Ashlee Alley Crawford) 박사는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장년 사역 담당 디렉터이며,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 소속 목사입니다.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에서 12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섬겼고, 10년 이상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고 격려하는 일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즈베리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으며, 제자사역부(Discipleship Ministries)의 제자 코칭(Discipleship Coaching)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점 본문: 마가복음 12:28~34, 레위기 19:9~18, 요한복음 13:34~35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규정되는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사랑하는 방법”은 여전히 질문으로 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지? 번아웃 되지 않을까? ‘담대하게’라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담대해지라는 뜻이지?” 또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담대하게 사랑하다가 나만 혼자 위험에 노출되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그 자리에서 멈춰 세우고, 얼어붙게 만들며, 결국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크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랑과 두려움, 위험과 걱정이 맞닿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십니다. 담대하게 사랑하는 위험을 함께 감수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함께 응답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함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예배를 기획할 때, “함께 됨”을 강조할 길을 찾아보십시오.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할 때, 회중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돕기 바랍니다. “예수처럼 사랑하기”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담대한 사랑으로 묶인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로 서로를 담대하게 사랑하라고 촉구하십시오. 담대하게 사랑하라는 부르심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부름임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담대하게 사랑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배 가운데 담대하고 작은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중보기도’에서 공동체의 상처와 고난을 정직하게 이름 붙이십시오. 그 상처와 고난에 하나님의 담대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어떻게 응답할지 하나님께 보여 달라고 구하십시오. 또한 신학 교육이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관점과 도구를 제공하여,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에 응답하도록 어떻게 돕는지도 이야기하십시오. 몇 주 전부터 교회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림을 그리게 해 보십시오. 그 그림들을 예배 공간 곳곳에 기도 스테이션으로 설치하거나, 조용한 기도와 성찰의 시간에 스크린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예배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담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강조할 순간들을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누고, 우리가 받은 것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제자도로의 부름

이번 주에 20분을 내어 동네를 걸어 보거나 (혹은 차로 돌아보며) 기도해 보십시오.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웃이 “담대하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지점을 알아차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불의에 저항하며 담대하게 사랑하는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리사 핸콕(Lisa Hancock) 박사는 예배 예술 사역(Worship Arts Ministries) 디렉터로서, 과거 북서텍사스연회와 북텍사스연회(현 통합 전 연회) 소속 연합감리교회들에서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퍼킨스신학대학원(Perkins School of Theology)에서 예배 음악 석사(Master of Sacred Music)와 신학 석사(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학위를 받은 뒤, 남감리교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리스도론, 장애(disability), 속죄론(atonement)을 주제로 연구하고 집필했습니다. 또한 “Growing in Grace: Accessible Worship for All God’s Children”(은혜 안에서 자라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예배) 이니셔티브의 공동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초점 본문: 마가복음 12:28~34, 레위기 19:9~18, 요한복음 13:34~35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마음으로’ 배웠다가보다 ‘기계적으로’ 외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어를 알고 성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배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씨름해 보았습니까? 사랑한다는 일에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이해합니까? 아마도 감독들의 비전 선언문 뒤에는 이런 질문이 놓여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며’ 사랑하라는 부름입니다. 이것이 존재 방식으로 얼마나 담대한 길인지 이해하라는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물려서서 이 계명을 살펴봅시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명령할 수 있다’라는 이해는 대중적 상식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중문화에서 사랑은 상황이나 개인에 대한 반응, 때로는 반작용입니다. 사랑은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은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오랜 히브리 전통을 따라—사랑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 중 셋은 이 계명을 특정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와 누가에서는 이것이 시험처럼, 예수를 무능한 교사로 몰아넣으려는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질문은 더 진지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며 직접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던진 서기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마가는 그 서기관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마가복음 12:28, NRSV)라고 씁니다. 직전 논쟁에서 무언가가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강하게 건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 사람은 서기관처럼 논쟁하는군!” 하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공명(共鳴)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같은 걸이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를 잡아내려는 분위기 속에 솔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도 같은 솔직함으로 응답하십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놀랍습니다. 서기관은 예수께 만족하고, 예수께서도 서기관을 기뻐하십니다. 대화는 오가고, 마침내 예수의 놀라운 말씀으로 끝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마가복음 12:34, NRSV). 와, 예수께서 그런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예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사랑의 계명에 대한 서기관들의 열정 때문이었을까요? 서기관은 율법 인용에 깊이 기대어 그 가능성을 열정으로 품으면서, 그 명령의 담대함—사랑의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서기관이 계명의 “모든”(all)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ALL, ALL, ALL). 설교할 때 그 강조가 회중의 귀에 머물게 하십시오. ALL, ALL, ALL. 담대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은, 이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전력을 다해 사는 초대입니다. 남겨두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비축해 두지 않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전부입니다.

예수께서는 답을 더 확장하십니다.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주십니다. 요청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계명은 하나”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에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the second)라는 표현이 있어 두 큰 계명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나눌 수 없는 한 쌍,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레위기로 향하십니다. 두 계명은 모두 토라에서 왔지만, 본문에 서로 나란히 붙어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둘을 묶으신 분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서기관들의 반응에 놀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합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강조점을 줍니다. 이 시리즈에서 선택한 히브리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히 한 번 토크 던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정교하게 구성된 윤리(ethos)입니다. 환대는 그들(그리고 우리)의 신학적 정체성

의 중심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본문에는 지역의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정치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랑은 어떻게 더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미움의 시대에 / 사랑은 저항 행위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로린 브랜츠(Loryn Brantz, <https://mapawoods.com/2025/02/16/act-of-resistance/>)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예수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감수하는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사랑이 정말 ‘명령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대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방식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 문맥에서, 예수께서는 계명을 새롭게 제시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요한복음 13:34, NRSV). 이것은 단지 계명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지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니”—이 사랑이라는 것, ‘명령받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다르게 만들고, 자기 이익을 중심에 둔 세상과 구별되게 하며, 우리를 위험에 놓이게 합니다.

감독들의 비전 선언에서 이 부분이 말하는 냉정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차이에 대한 불안이 극대화된 순간에 환대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월과 지배의 시대에, 모든 나라와 모든 부족과 모든 백성이 모이는 하나님의 kin-dom을 다문화적 모습으로 품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부름을 두고 ‘담대하게’ 말고 다른 어떤 부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명령받은 사랑은 상황이나 개인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의 행위이며, 날마다 누구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문화나 두려움과 의심을 따라가며 살지 않습니다. 사랑을 명하시는 주님을 따라 삽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도록 힘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할 것입니다.

설교 사역 디렉터인 데릭 웨버 목사는 인디애나, 아칸소, 영국 감리교회에서 목회했으며,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설교학 및 미디어로 박사 (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20년 이상 신학교와 연회 사역 현장에서 설교를 가르쳐 왔습니다.

제3주 | 4월 26일—담대하게 사랑하라

음악 노트

초점 본문: 마가복음 12:28~34, 레위기 19:9~18, 요한복음 13:34~35

주제: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을 모험하기; 용기 있는 선택으로써의 사랑

전통 찬송가

-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UMH 402)
- 예수 예수, 당신의 사랑으로 (Jesu, Jesu, Fill Us with Your Love, UMH 432)
- 만복의 근원 하나님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UMH 384)
-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소서 (Help Us Accept Each Other, UMH 560)

TFWS / Worship and Song

- 나를 부르시는 주님 (The Summons, TFWS 2130)
- 주님을 사랑하라 (Love the Lord, W&S 3116)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We Are the Body of Christ, TFWS 2227)

흑인 영가 및 복음성가 / Gospel

- 길르앗에 향유가 있네 (There Is a Balm in Gilead, UMH 375)
-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Give Me a Clean Heart, TFWS 2133)
-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I Need You to Survive – Hezekiah Walker)
- 내 안의 예수가 당신 안의 예수를 사랑합니다 (The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글로벌 찬양

- 사랑이 있는 곳에 (Ubi Caritas et Amor – 폐제 공동체)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Somos el Cuerpo de Cristo – 멕시코/미국)

Songs of Zion (SOZ) 수록곡

- 예수님 나와 함께 걷기 원하네 (I Want Jesus to Walk with Me, SOZ 95)
- 나를 고치소서, 예수님 (Fix Me, Jesus, SOZ 122)
-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Give me a Clean Heart, SOZ 182)

현대 예배곡 (CCLI)

- 무모한 사랑 (Reckless Love – Cory Asbury)
- 날 자녀라 하시네 (Who You Say I Am – Hillsong Worship)

초점 본문: 마가복음 12:28~34, 레위기 19:9~18, 요한복음 13:34~35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사람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빚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사랑하도록 격려하심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담대하게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Written by Dr. Lisa Hancock, Discipleship Ministries, January 2026

개회 기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나 이곳을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평화가 다스리고, 정의가 자비와 함께 행해지며,
모든 이가 화해하는 미래를 우리 가운데 세워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dapted from a collection of Prayers for Time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risis and Tragedy, posted on the PCUSA website, <http://www.pcusa.org/>. Reposted on the re:Worship blog at <https://re-worship.blogspot.com/2013/07/prayer-in-times-of-violence-and-fear.html>.

고백의 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먼저 침묵 중에 우리 삶의 진실을 고백합니다.

(침묵 기도)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행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했던 것, 행동해야 할 때 멈춰 섰던 것, 응대해야 할 때 외면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말할 용기를 주소서. 힘겨운 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확신을 주소서. 두렵고 불편한 상황일 지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Written by Beth Merrill Neel on her blog, "Hold Fast to What Is Good." Used with permission. <https://holdfasttowhatisgood.com/liturgy/prayer-of-confession>.

파송의 말씀

사랑이 다스릴 때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랑하는 실재가 되도록,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랑 자체가 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곧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Written by Dr. Cheryl Lindsay on the Worship Ways website at <https://www.ucc.org/worship-way/after-pentecost-24b-november-3>.

제3주 | 4월 26일—담대하게 사랑하라

봉헌 기도

초점 본문: 마가복음 12:28~34, 레위기 19:9~18, 요한복음 13:34~35

사랑을 명하시는 은혜의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을 살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자기 이익이 보상받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베풀고, 너그럽게 섬기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모험’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순종의 표징으로, 또한 환대가 넓고 은혜가 풍성하며 사랑에 주저함이 없는 주님 나라의 씨앗으로 받아 주소서.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빛어지는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점 본문: 마가복음 12:28~34, 레위기 19:9~18, 요한복음 13:34~35

핵심 부사: 담대하게

준비물

하트 스티커, “담대한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라고 적힌 커다란 전지(포스터)

메시지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랑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이들의 대답을 듣습니다.) 맞아요, 사랑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이에요.

아주 오래전, 한 남자가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계명이란 하나님이 주신 법이나 규칙을 말해요. 즉, “‘가장’ 중요한 규칙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은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도 하셨죠. 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아주 크고,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담대한 사랑’이라고 불러요. ‘담대하다’라는 것은 크고, 씩씩하고, 용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의 부사는 ‘담대하게’입니다. 따라 해 볼까요? “담대하게!”

부사는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고 했죠? 오늘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우리가 담대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 아무도 먼저 사랑하지 않을 때, 먼저 사랑해요.
-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사랑해요.
- 사랑하기 힘들 때조차 사랑하기로 선택해요.
- 슬프거나 외로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줘요.

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을지 상상해 봐요.

만약 점심시간에 누군가 혼자 앉아 있다면, 어떻게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대답하게 기다려 주세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담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책을 떨어뜨렸다면요? (어린이들이 대답하게 기다려 주세요) 훌륭해요! 그것도 담대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재미있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하트 스티커를 줄게요. 스티커를 받으면 “담대한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라고 적힌 포스터에 붙일 거예요. 붙이기 전에,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누군가를 사랑할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을 나누니까 포스터가 정말 아름다워졌네요!

우리 담대한 사랑을 몸으로 표현해 볼까요? 커다란 포옹을 하는 것처럼 팔을 옆으로 아주 크게 벌려보세요. 담대한 사랑은 이렇게나 클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봐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나도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축복 기도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것처럼 두 손을 모아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담대하게 사랑하게 하시길 빕니다.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여러분을 격려하여 기쁘게 섬기게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 용기 있게 이끌게 하시길 빕니다.

담대하게 사랑하십시오. 기쁘게 섬기십시오. 용기 있게 이끄십시오.

아멘.

주간 활동: 가족 대화 안내와 활동

이 질문과 활동들은 가족들이 한 주간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일에 나누었던 어린이 설교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더욱 굳건히 세워 줍니다. 식탁에서, 차 안에서, 잠들기 전 — 가족이 함께하는 어떤 순간이든 활용해 보세요.

내용은 단순하고 짧으며, 열린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일상의 순간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주일에만이 아니라 한 주 내내 이어지는 것임을 가족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주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핵심 부사: 담대하게

대화 나누기

- 오늘 누구를 담대하게 사랑했나요?
- 예수님이 슬프거나 외로운 사람을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 담대하게 사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 누군가 여러분을 아주 크고 용감한 방식으로 사랑해 줄 때 기분이 어떤가요?

가족 활동

1. 담대한 사랑 보물찾기

집 안이나 동네를 돌며 우리 가족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찾기
- 함께 청소할 곳 찾기
- 격려가 필요한 친구나 이웃 생각하기

각 장소를 ‘담대한 사랑 미션 장소’라고 부르며 이야기 나눠보세요.

2. 커다란 사랑 그리기

커다란 종이에 하트 스티커나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담대하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그려 넣고,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서로 이야기 해 보세요.

3. 가족 담대한 사랑 챌린지

이번 주에 우리 가족이 실천할 담대한 사랑 한 가지를 정해 보세요.

- 누군가에게 카드 써주기
-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음식 기부하기
- 친구에게 장난감 빌려주기
-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놀자고 말하기

이번 주의 기도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담대하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제3주 | 4월 26일—담대하게 사랑하라

청소년 메시지

초점 본문: 마가복음 12:28~34, 레위기 19:9~18, 요한복음 13:34~35

인도자를 위한 안내

이 수업은 두려움과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합니다. 마음 열기는 사랑이 ‘쉽게’ 느껴지는 일상 상황과 ‘불편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을 읽은 후, 학생들은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방식과 공동체가 담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토의합니다. 활동에서는 미술과 ‘레이어’(겹)의 개념을 사용해 두려움과 지지가 동시에 존재함을 탐구합니다. 이를 통해 ‘담대하게 사랑하기’는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나눠 짊어져 주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준비물

- 흰 종이 (학생 1인당 1장)
- 마커 또는 색연필
- 펜 또는 연필
- (선택) 트레이싱 페이퍼(투사지) 또는 벨럼(반투명 용지) (레이어 변형 활동용, 학생 1인당 1장)

마음 열기

10분 쉬운가, 위험한가?

학생들을 둘씩 짝지으십시오. 서로 대화하며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조합으로 짝을 구성해 보십시오. 진행자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일상적인 상황을 하나씩 차례대로 읽습니다. 상황마다 학생들은 가까운 한두 사람에게 잠깐 돌아서 질문에 짧게 답합니다. 그 후 그룹에 질문하십시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쉽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위험하게 느껴지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손을 들어 어느 쪽인지 표시하게 합니다.

그다음 학생들은 짝과 서로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원한다면, 한두 명 정도 전체 앞에서 간단히 나누게 한 뒤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십시오.

읽어 줄 상황 예시

- 놀림 당하는 친구를 위해 나서기
- 새로 온 사람에게 같이 앉자고 초대하기
- 잘못했을 때 “미안해”라고 말하기
-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을 끼워 주기
- 속상해 보이는 사람을 세심히 살피고 챙겨주기

몇 차례 반복한 후,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경험한다는 점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룹에 물어보십시오.

성경 읽기

5분 읽기: 요한복음 13:34~35

토의 질문

10분

-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사랑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나요?
- 담대한 사랑이 작거나 평범한 방식으로 실천되는 것을 어디에서 보았나요?
- 사랑이 위험하게 느껴질 때, 공동체는 사람들이 계속 나아가도록 어떻게 돕나요?
- 사람들이 담대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두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담대하게 사랑하기”가 한 사람이 아닌 한 그룹의 일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체험 활동

20분 담대한 사랑의 층

학생 1인당 종이 1장과 마커를 나누어 줍니다. 담대하게 사랑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두려움, 위험, 걱정을 나타내는 단어, 상징, 색 또는 모양을 종이에 쓰거나 그리게 하십시오. 단어나 상징은 서로 떨어지게 배치하여, 주변에 흰 여백을 충분히 남기게 하십시오. 이 활동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이어도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분 후, 학생들에게 방금 만든 것의 주변이나 연결된 곳에 지지, 공동체, 함께함을 상징하는 단어, 상징, 또는 색을 덧붙이게 하십시오. 단, 처음에 작업한 것을 덮어쓰거나 지우지 않도록 안내하십시오.

완성 후, 자원자를 받아 덧붙인 겹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관찰한 것을 나누게 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지지 속에서 사랑이 자란다는 점을 설명하십시오.

선택 변형 (준비물이 있는 경우)

기본 종이 외에, 학생 1인당 반투명 종이(트레이싱 페이퍼 등)를 한 장 더 나눠 줍니다.

학생들은 먼저 단단한 종이에 두려움 또는 위험에 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다음 반투명 종이를 위에 올리고, 지지, 공동체, 함께하는 사랑을 상징하는 단어, 상징, 색을 덧그립니다.

아래 원래 레이어는 그대로 보이게 둡니다. 이 변형은 공동체가 두려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강화합니다.

성찰 질문

- ‘지지의 레이어’가 아래에 있던 것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무엇을 알아차렸나요?
- 두려움과 지지가 동시에 존재하도록 두는 느낌은 어땠나요?
-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담대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해 주나요?

기도

5분 여러분 그룹의 전통이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모임을 마치십시오.

초점 본문: 마가복음 12:28~34, 레위기 19:9~18, 요한복음 13:34~35

교제

다과 또는 식사 (다과가 있으면 10분; 식사가 있으면 더 길게)

모임 준비 시간 (5~10분)

참여자들을 2~3명씩 소그룹으로 나누고 다음을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담대함’과 연결해 보려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성품의 중심에 있고, ‘담대하게’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부사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담대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언제였나요?”

그룹 대화 (약 30분)

아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본문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2:28~34, 레위기 19:9~18, 요한복음 13:34~35

- 마가복음 12장 28~34절에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 질문한 율법 교사(서기관)에 대해 무엇이 눈에 띄나요? 그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 »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에서 무엇이 눈에 띄나요?
 - »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 레위기 19장 9~18절에서, 이제 막 형성되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서로를 공경하는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이 본문에서 담대한 행위 그리고/또는 사랑의 행위가 묘사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 » 이 짧은 본문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것을 “새”라고 부르셨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것이 ‘완전히 새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 “새”라고 말합니다.]
 - » 다음 본문들의 문맥(앞뒤)을 함께 읽거나 참고해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3:1~17, 13:18~30, 13:36~38
 요한복음 13장 1~17절은 종의 마음을 가진 예수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보여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8~30절은 예수께서 배반할 자를 지목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38절은 “반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드러냅니다.
- 이번 주 설교 노트는 로린 브랜츠(Loryn Brantz) 시의 첫 구절을 언급합니다. “미움의 시대에 / 사랑은 저항 행위다.” 설교 노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에서 예수처럼 사랑하기로 할 때 우리가 감수하는 위험을 상기시켜 준다.”
 - »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된다고 느끼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 이 모든 성경 본문을 고려한 뒤, 여러분은 사랑과 담대함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 » 담대하게 사랑하는 힘(기원, 근원)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나요?
- **딱 한 가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담대하게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개인 심화 묵상:** 이번 주에는 아래의 패턴으로 선택 본문 중 하나를 공부해 보십시오.
 - »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시편 119:18).
 - » 본문(마가복음 12:28~34; 레위기 19:9~18; 요한복음 13:34~35)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 » 본문에서 무엇이 눈에 띄나요?
 - » 어떤 질문이 떠오르나요?
 - »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기도 (10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황에 맞게 함께 기도합니다.

파송 (2분)

다음 기도, 또는 이와 비슷한 기도, 혹은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담대함의 하나님, 사랑이 수반하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때로는 위험하게 느껴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새 계명으로 부르셔서,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빚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신실하게 걸어가며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 훈련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https://www.umcdiscipleship.org/subscribe>

애슐리 앨리 크로포드(Rev. Dr. Ashlee Alley Crawford) 박사는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장년 사역 담당 디렉터이며,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 소속 목사입니다.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에서 12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섬겼고, 10년 이상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고 격려하는 일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즈베리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으며, 제자사역부(Discipleship Ministries)의 제자 코칭(Discipleship Coaching)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점 본문: 시편 100편, 베드로전서 4:8~11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사례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본다면, 세 원이 서로 겹치는 중앙 영역에서 많은 예를 발견할 가능성이 큼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교회에서 ‘담대하게 사랑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이야기는 ‘기쁘게 섬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주 예배에도 아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 반복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교육학에서는 이를 ‘나선형 학습’(spiral learning)의 한 예로 말합니다. 한 이야기나 아이디어로 계속 되돌아오되, 매번 새로운 배움과 관점을 덧붙여 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시리즈 전반에서 신학 교육을 강조한다면, 이번 주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개인적·사회적 성결로 빚어 가시는 방식 중 하나로써, 존 웨슬리의 교육관에 대해 회중을 가르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좋은 자료를 소개한다. https://media.methodist.org.uk/media/documents/education-amethodistperspective-270312_Se2P1wT.pdf)

또한 기획하면서, 담대하게 사랑하기, 기쁘게 섬기기, 용기 있게 인도하기가 서로 맞물려 우리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더 깊은 자리로 끌어당기는 나선처럼 작동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리즈 동안 같은 찬송을 반복해서 부른다면, 기쁨을 강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주 한 절에서 새 아이디어를 짚어 주거나 찬송의 역사 중 한 대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같은 가사를 서로 다른 곡조로 불러 보고, 곡조가 바뀔 때마다 그 메시지가 어떻게 다르게 경험되는지 회중이 알아차리도록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기쁨을 강조하는 곡조나 가사 부분을 선택하십시오—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때 생겨나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의 환희’를 강조하는 요소 말입니다. 회중의 아이들이 기쁨의 노래를 인도하게 하거나, 어린이 메시지 시간에 기쁨과 섬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이들이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설교도 선포입니다!)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기쁨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기 전에 반드시 기뻐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기쁘게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회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고 감사하는 순간들을 예배 안에 마련하십시오. 만약 이번 계절에 회중이 탄식과 애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도 충분히 내어 주십시오. 기쁘게 섬기는 것과 은혜롭게 애도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쁜 섬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공동체적 표현이며, 이웃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 예배에서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울어야 한다면 눈물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웃어야 한다면 웃음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좌절과 두려움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면, 공동체가 서로의 좌절과 두려움을 보살필 수 있는 순간을 마련하십시오. 이 모든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기쁘게 섬기게 하십니다.

제자도로의 부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다음의 ‘호흡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순간들을 찾아보십시오. (숨 들이쉬며) “하나님, 제게 주님의 기쁨을 채워 주소서.” (숨 내쉬며)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한 주 내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기쁨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섬김으로 능하게 하시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리사 헨콕(Lisa Hancock) 박사는 예배 예술 사역(Worship Arts Ministries) 디렉터로서, 과거 북서텍사스연회와 북텍사스연회(현 통합 전 연회) 소속 연합감리교회들에서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퍼킨스신학대학원(Perkins School of Theology)에서 예배 음악 석사(Master of Sacred Music)와 신학 석사(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학위를 받은 뒤, 남감리교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리스도론, 장애(disability), 속죄론(atonement)을 주제로 연구하고 집필했습니다. 또한 “Growing in Grace: Accessible Worship for All God’s Children”(은혜 안에서 자라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예배) 이니셔티브의 공동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초점 본문: 시편 100편, 베드로전서 4:8~11

기쁨을 설교하는 일은 쉬운 과제처럼 보입니다. 누가 그 고양감을 원치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일 때 누가 그 기쁨의 축제를 원치 않겠습니까?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과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확신—그 기쁨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을 잠깐만 들여다보아도, 기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염성 있는 환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읽기만 해도—더 나아가 노래하면—주변을 감싸는 기쁨의 분위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찬송가(United Methodist Hymnal) 75장, “All People That on Earth Do Dwell.”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그 내용은 사실 시편 100편입니다. 곡조 이름도 “Old 100th”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시편 100:1, NRSV)는 찬송가에서 “All people that on earth do dwelling to the Lord with cheerful voice”(땅 위의 모든 사람들아, 즐거운 목소리로 주께 노래하라)로 옮겨 퍼집니다. 아마 이번 주엔 실제로 불러 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기억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찬송가 1절 다음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Him serve with mirth.” 이 말을 잠시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기쁘게(유쾌하게) 섬기라.” 마지막으로 예배에서 ‘mirth’—가벼운 유쾌함, 기쁨의 웃음—를 허용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산만함이나 방해가 아니라, 의도적 순간으로,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는 초대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를 기쁨으로 섬기라.”

이번 주는 ‘기쁨을 위한 기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는 부사입니다. 이번 주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이번 예배의 동사, 행동, 의도는 섬김입니다. “기쁘게 섬기라.” 이렇게 기쁨과 섬김이 만나면 이상하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헌신, 노력, 수고, 짐 같은 느낌이 따라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시편 100편은 섬김이 아니라 예배에 관한 시편 아닌가? 그러면 기쁘게 예배하는 것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웬지 그게 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고(故) 프레더릭 뷔크너(Frederick Buechner)는, 그 구분 자체가 오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Worship Service)와 예배의식(Service of Worship) 같은 표현은 동의반복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다. ... 한 방식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심부름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 등이다. 다른 방식은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요컨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하는 이 앞에서 연인들이 어리석어지듯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예배가 어떤 형태이든, 그 과정에 기쁨과 어떤 ‘어리석음’이 없다면, 차라리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하는 편이 낫다.”

— Frederick Buechner, *Wishful Thinking* (Harper & Row, 1973), 97-98.

“유익한 일을 한다”(doing something useful)는 주님 안에서 섬김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구호일지 모릅니다. 특히 뷔크너의 권면대로, 그 섬김에 기쁨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베드로전서 4:10, NRSV). 한편으로 이것은 영적 은사의 ‘공동체적 성격’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받은 은사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말썬은, 하나님의 각양 은혜가 결국 섬김을 위해 주어졌고, 세우기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섬김이 일어나는 태도를 묻게 됩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은사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자각하는 사람으로서 섬기도록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근원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 힘이 아니라, 섬김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익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원망 없이 환대하며,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유익한 일’ 속에서, 우리와 서로를 위한 그 유익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는 ‘태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의 태도, 우리가 예배할 때의 태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진 삶이 섬길 수 있는 방식은 하나뿐입니다. “기쁘게 그를 섬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기쁨이 샘솟아 흐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깁니다.

초점 본문: 시편 100편, 베드로전서 4:8~11

주제: 기쁨으로 타인을 섬기기; 즐거운 봉사로서의 예배

전통 찬송가

- 온 땅아 주를 찬양하라 (All People That on Earth Do Dwell, UMH 75)
- 나 여기 있사오니 (Here I Am, Lord, UMH 593)
- 기뻐하라 왕 되신 주 (Rejoice, the Lord Is King, UMH 715)

TFWS / Worship and Song

-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네 (Sent Out in Jesus' Name, TFWS 2184)
- 참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TFWS 2056)
- 삶의 원칙 (Rule of Life, W&S 3117)

흑인 영가 및 복음성가 / Gospel

- 주님 쓰시도록 나 살리라 (I'm Gonna Live So God Can Use Me, TFWS 2153)
- 주여 내가 믿나이다 (I Will Trust in the Lord, UMH 464)
- 나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My Tribute, UMH 99)

글로벌 찬양

- 예수 예수, 당신의 사랑으로 (Jesu, Jesu - 가나 민요 선율)
- 하나님의 행사가 크고 기이하다 (Many and Great, O God - 다코타 인디언 찬양)
-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네 (Siyahamba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사라남, 사라남 (주께 피하나이다) (Saranam, Saranam, UMH 523) - 파키스탄/핀자브 찬송

Songs of Zion (SOZ) 수록곡

- 그때에 알게 되리라 (We'll Understand It Better By and By, SOZ 55)
- 이 작은 빛 (This Little Light of Mine, SOZ 132)
- 나는 노래하리라 (I'm Gonna Sing, SOZ 81)
- 주여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SOZ 76)

현대 예배곡 (CCLI)

- 주님의 집 (House of the Lord - Phil Wickham)
- 무덤에서 동산으로 (Graves Into Gardens - Elevation Worship)
- 여호와 기쁨 (Joy of the Lord - Rend Collective)

초점 본문: 시편 100편, 베드로전서 4:8~11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모든 피조물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모입니다.
온 땅아,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온 땅아,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담대하게 사랑하라 가르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온 땅아,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온 땅아,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개회 기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 노래를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입에 새로운 찬송을, 우리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주셨습니다. 특히 '권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의로움, 정의와 자비로 빚어진 권능입니다. 이제 우리는 권능이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타인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어떻게 권력에 대한 사랑이 사랑의 권능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로 누리는 주님의 사랑의 통치를 이곳에서 기쁘게 축하합니다. **아멘.**

Adapted from Moira Laidlaw, posted on her Liturgies Online website. Re-posted on the re:Worship blog at <https://re-worship.blogspot.com/2011/11/call-to-worship-prayer-proper-29a.html>.

고백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주변 사람들의 필요는 너무나 자주 간과합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환대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감 제도가 인간성을 어떻게 훼손하는지,
의료 시스템이 가난한 이들의 치유를 어떻게 가로막는지,
빈곤이 아이들의 옷을 어떻게 앗아가는지,
법적인 장벽이 나그네를 어떻게 멀리 밀어내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모든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의 현존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함으로 우리가 참된 주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하소서. 아멘.

용서의 확신

우리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갈망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섬기도록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Adapted from Rev. Ruth Garwood on the Worship Ways website at <https://www.ucc.org/worship-way/reign-of-christ-year-a-november-22-united-church-of-christ>.

파송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감싸고 지탱하며, 여러분을 통해 기쁜 섬김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나누는 동안 주님의 복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Written by Dr. Lisa Hancock, Discipleship Ministries, January 2026.

제4주 | 5월 3일—기쁘게 섬기라

봉헌 기도

초점 본문: 시편 100편, 베드로전서 4:8~11

모든 선한 선물을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시여, 주님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누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이 예물을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받아 주소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진리를 은혜로 선포하며, 내 힘이 아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타인을 섬기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소서. 억지 부리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기쁜 청지기로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섬기시는 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점 본문: 시편 100편, 베드로전서 4:8~11

핵심 부사: 기쁘게

준비물

‘섬김의 도구’가 담긴 쟁반(스펀지, 숟가락, 반창고, 장갑), 웃는 얼굴(스마일) 스티커

메시지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섬김’에 대해 배울 거예요. 섬김이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해요. 오늘 선생님이 성경 두 곳을 읽어줄 거예요.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하나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통명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신약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은사)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신실하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사는 ‘기쁘게’입니다. 따라 해 볼까요? “기쁘게!” (아이들이 단어를 따라 하게 합니다.) 부사는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고 했죠? 오늘의 부사인 ‘기쁘게’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기쁘게’ 섬길 때, 우리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요.

여기 쟁반 위에 몇 가지 물건이 있어요. 스펀지, 숟가락, 반창고, 장갑이에요. 이 물건들이 우리가 섬기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살펴볼까요?

- (스펀지를 보여주며) 스펀지는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닦을 때 사용해요.
- (숟가락을 보여주며) 숟가락은 배고픈 사람을 먹여줄 때 사용할 수 있죠.
- (반창고를 보여주며) 반창고는 다친 친구의 마음이나 몸을 낮게 도와줘요.
- (장갑을 보여주며) 장갑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손을 보호해 줘요.

자, 이제 연습해 봐요! 선생님이 어떤 상황을 말하면, 여러분이 몸으로 흉내 내 보는 거예요.

- 친구가 슬퍼해요. 여러분의 손이나 포옹, 혹은 미소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동작을 취합니다.)
- 가족들이 장난감을 치우고 있어요. 아주 즐겁고 커다란 동작으로 장난감을 줍는 흉내를 내볼까요? (아이들이 즐겁게 청소하는 시늉을 합니다.)
-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외투 지퍼를 올리는 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돕는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훌륭해요! 기쁘게 섬기는 것은 아주 작은 행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담긴 사랑과 기쁨을 다 보고 계신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웃는 얼굴 스티커를 하나씩 나눠줄게요. 이 스티커를 붙이고 기억하세요.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섬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나는 기쁘게 섬길 수 있어요!”

축복 기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담대하게 사랑하게 하시길 빕니다.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여러분을 격려하여 기쁘게 섬기게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 용기 있게 이끌게 하시길 빕니다.
담대하게 사랑하십시오. 기쁘게 섬기십시오. 용기 있게 이끄십시오.
아멘.

주간 활동: 가족 대화 안내와 활동

이 질문과 활동들은 가족들이 한 주간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일에 나누었던 어린이 설교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더욱 굳건히 세워 줍니다. 식탁에서, 차 안에서, 잠들기 전 — 가족이 함께하는 어떤 순간이든 활용해 보세요.

내용은 단순하고 짧으며, 열린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일상의 순간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주일에만이 아니라 한 주 내내 이어지는 것임을 가족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주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핵심 부사: 기쁘게

대화 나누기

- 오늘 누군가를 도운 일이 있나요? 어떤 방법이었나요?
-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왜 ‘기쁜 마음’이 중요할까요?
-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쁘게’ 도와준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을 돕는 특별한 선물’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떤 선물(재능)이 보이나요?

가족 활동

1. 기쁜 섬김의 깜짝 작전
가족이나 이웃 중 한 명을 정해 몰래 ‘기쁜 섬김’을 계획해 보세요. 그림 그려주기, 장난감 대신 정리해 주기, 다정한 편지 남기기 등 무엇이든 좋아요. 하루가 끝날 때 깜짝선물을 공개하세요!
2.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청소 시간
신나는 음악을 틀고 가족과 함께 청소해 보세요. 기쁘게요!
기쁜 마음으로 도울 때 청소 시간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나눠보세요.
3. 기쁨의 손바닥
종이에 자녀의 손을 대고 그려보세요. 다섯 손가락에 각각 기쁘게 섬길 방법(돕기, 나누기, 미소 짓기, 배려하기, 위로하기 등)을 쓰거나 그려 넣으세요. 이 종이 손바닥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번 주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소와 친절,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초점 본문: 시편 100편, 베드로전서 4:8~11

인도자를 위한 안내

이 수업은 감정이 뒤섞이거나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기쁘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마음 열기는 빠르게 진행되는 게임 형태의 도전으로 학생들이 웃고 말하게 하며, 기쁨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성경을 읽은 후, 학생들은 기쁨이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는 가운데 자라나는 것임을 토의합니다. 촉감 활동은 학생들이 섬김의 나선을 물리적으로 만들고 다시 형태를 바꾸게 하여, 기쁨, 감사, 슬픔, 신뢰가 모두 함께 존재할 수 있음을—신실한 공동체의 일부로서—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준비물

- 잡다한 작은 물건들 (예: 돌, 블록, 고무공, 열쇠, 나무 조각 등 비슷한 것)
- 작은 종이쪽지 (학생 1인당 1장)
- 펜 또는 연필

마음 열기

10분 기쁨 바꾸기

각 학생에게 작은 종이쪽지와 펜을 나눠 줍니다. 자신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는 평범한 것 하나(예: 노래, 간식, 순간, 습관)를 적게 하십시오. 모든 종이를 용기에 넣고 섞습니다.

그다음 학생들이 무작위로 하나씩 뽑습니다. 원을 따라 빠르게 돌아가며, 각 학생은 자신이 뽑은 ‘기쁨’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합니다. “이것이 너에게도 기쁨이 될까? 왜 그렇거나 왜 아닐까?” 그리고 그 종이를 쓴 학생이 누구인지 맞춰 보게 하십시오. 가볍고 유쾌하게 진행하며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에는 사람마다 기쁨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짧게 정리하십시오.

성경 읽기

5분 읽기: 갈라디아서 5:13~14

토의 질문

10분

- 이 구절은 자유와 섬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 사랑으로 서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나요?
-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섬기는 사람에게 종종 기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 본문은 사람들을 섬김의 자리로 부르면서, 동시에 어떻게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해 주나요?
- 다른 사람을 섬기며 기쁨을 경험했던 때를 나눠 보세요.
-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어떻게 힘을 실어 줄 수 있을까요?

체험 활동

20분 함께 섬김 이루어 가기

수업 전, 방 가운데 다양한 작은 물건들을 놓아 두십시오(아래 예시 참고). 무게, 질감, 모양이 서로 다른 물건들이면 좋습니다.

학생들이 물건들 주변에 모이게 하십시오. 어떤 물건들은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을 나타내고, 어떤 물건들은 섬김 중에 나타나는 감정을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상징하는 물건 하나를 고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물건을 가운데에 놓아 함께 하나의 더미나 무리를 만들게 하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간단히 설명하게 하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지시 사항을 줍니다. 섬길 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예: 기쁨, 감사, 좌절, 슬픔, 피곤함, 탈진)을 상징하는 다른 물건 하나를 고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섬김의 물건들 주변에, 위에, 혹은 옆에 놓게 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게 하십시오.

기쁜 섬김은 다른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안에 함께 붙들려 있다는 점을 강조 하십시오.

성찰 질문 (활동용)

- 가운데에서 물건들이 함께 놓일 때 무엇을 알아차렸나요?
- 섬김과 함께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고, 왜 그랬나요?
- 이 활동은 함께 기쁘게 섬긴다는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주었나요?

물건 예시

- 매끈한 돌 또는 작은 바위
- 나무 블록 또는 젠가 조각
- 고무공 또는 튀는 공
- 열쇠 또는 오래된 열쇠고리
- 동전
- 집게 (빨래집게)
- 작은 플라스틱 컵
- 스펀지
- 문진 또는 작은 책 지지대
- 레고 블록 또는 비슷한 조립용 부품

기도

5분 여러분 그룹의 전통이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모임을 마치십시오.

초점 본문: 시편 100편, 베드로전서 4:8~11

교제

다과 또는 식사 (다과가 있으면 10분; 식사가 있으면 더 길게)

모임 준비 시간 (5~10분)

다음은 나누며 모임의 방향을 잡습니다. “이번 주의 부사는 ‘기쁘게’이며, 이것은 ‘섬김’과 짝을 이룹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때로 드러나지 않는 일, 혹은 허드렛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2~3명씩 소그룹으로 다음 질문에 대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심으로 기쁨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그 섬김이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룹 대화 (약 30분)

아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본문을 읽습니다. 시편 100편, 베드로전서 4:8~11

- 시편 100편: 이 시편의 노래하는 이에게서 기쁨이 어떻게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나요?
 - » 이 시편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 » 이 시편을 근거로 ‘기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 우리는 때때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쁘게 ‘느끼지’ 못할 때 무언가를 기쁘게 하라는 초대와 여러분은 어떻게 씨름하나요?
- 베드로전서 4장 8~11절: 초대 교회를 위한 이 권면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위가 언급되며, 섬김은 10절과 11절에서 두 번 분명히 말해집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섬김을 어떻게 말하나요?
 - » 이 본문에서 섬김과 연결된 태도는 무엇인가요?
 - » 이런 섬김이 낳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 » 여러분은 자신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일을 얼마나 자주 연결해 생각하나요?
- 이번 주 설교 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은사로 부름받았다는 감각과, 섬김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하며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근원입니다 – 우리의 말이나 힘이 아니라, 섬김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입니다.”

 - » 공동체에서 우리 각자가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고, 섬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 오늘의 나눔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섬김과 기쁨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 **딱 한 가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기쁘게 섬긴다’라는 의미를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개인 심화 묵상: 이번 주에는 아래의 패턴으로 선택 본문 중 하나를 공부해 보십시오.
 - »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시편 119:18).
 - » 본문(시편 100편, 베드로전서 4:8~11)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 » 본문에서 무엇이 눈에 띄나요?
 - » 어떤 질문이 떠오르나요?
 - »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나요?

기도 (10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황에 맞게 함께 기도합니다.

파송 (2분)

다음 기도, 또는 이와 비슷한 기도, 혹은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기쁨의 하나님, 우리는 늘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과의 삶으로 더 깊이 초대하셔서, 예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시는 주님의 영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빚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신실하게 걸어가며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 훈련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https://www.umcdiscipleship.org/subscribe>

애슐리 앨리 크로포드(Rev. Dr. Ashlee Alley Crawford) 박사는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장년 사역 담당 디렉터이며,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 소속 목사입니다.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에서 12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섬겼고, 10년 이상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고 격려하는 일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즈베리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으며, 제자사역부(Discipleship Ministries)의 제자 코칭(Discipleship Coaching)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점 본문: 여호수아 1:5~9, 에베소서 6:10~18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요단강 강가에 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다리는 수천 명 앞에 서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삶의 어느 순간엔가 “여호수아의 순간”(Joshua moment)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눈앞의 과업을 피할 수 없음을 아는 순간, 우리가 앞장서길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용기 있게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용기 있게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순간들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의 성경 본문들을 함께 놓고 보면, 용기 있게 인도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따르는 이로서의 인도함을 그려 줍니다.

따르는 이로서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말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예배가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빚어 갑니다. 우리는 예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따르는 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정체성을 연습합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게 인도한다는 것은 단독자, 외로운 늑대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용기 있게 인도한다는 것은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 지닌 상처와 기쁨, 지혜와 통찰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를 정직하고 노골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부르시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함께 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인도한다는 것은 내가 꼭 책임자가 아니어도 잘 인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좋은 리더십을 특징짓는 겸손과 관대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학 교육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용기 있는 인도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신학 교육 여정을 나눠서,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에게 신학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보여 주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번 주를 기획하며, 담대하게 사랑하기, 기쁘게 섬기기가 용기 있게 인도하기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하고 관대한 리더십의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 교회의 공동 삶을 빚어 왔나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회중이 매일 혹은 매주 맞닥뜨리는 작은 “여호수아의 순간들”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용기가 꺾일 때 그 용기에 힘을 공급하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부르십시오! 용기로 인도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회중이 기억하도록 도우십시오. 용기 있게 인도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 보일 때, 마음을 북돋우고 영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도문, 노래, 혹은 짧은 묵상을 회중에게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복과 확인으로 파송하십시오.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자도로의 부름

이번 주 매일 시간을 내어 전 세계 연합감리교 지도자들—평신도 지도자, 목회자, 감독, 신학 교육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두의 번영을 위해 일하는 그들과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길 한 가지를 보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리사 핸콕(Lisa Hancock) 박사는 예배 예술 사역(Worship Arts Ministries) 디렉터로서, 과거 북서텍사스연회와와 북텍사스연회(현 통합 전 연회) 소속 연합감리교회들에서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퍼킨스신학대학원(Perkins School of Theology)에서 예배 음악 석사(Master of Sacred Music)와 신학 석사(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학위를 받은 뒤, 남감리교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리스도론, 장애(disability), 속죄론(atonement)을 주제로 연구하고 집필했습니다. 또한 “Growing in Grace: Accessible Worship for All God’s Children”(은혜 안에서 자라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예배) 이니셔티브의 공동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초점 본문: 여호수아 1:5~9, 에베소서 6:10~18

여호수아는 약속된 미래, 상상되던 미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모세—광야를 떠도는 무리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 주었던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영원히 살 것만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았고, 기대고 의지하고 길을 보여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떠났고, 여호수아는 홀로 서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하지?” 무엇이든, 지도자가 낡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감독들은 그중 적어도 하나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전 선언을 “용기 있게 인도하라”(Lead Courageously)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사적 성질’—용기 있게—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흔히 그것이 내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용기를 내라” 같은 소리일지 모릅니다. 또는 남편이 왕을 죽이고 왕좌를 차지하려는 계획 앞에서 흔들릴 때, 레이디 맥베스가 남편에게 던지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하겠지! 하지만 네 용기를 단단히 죄어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맥베스 1막 7장)

우리는 오늘날 더 단순하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운동화 회사의 구호처럼요. “Just do it!” 그 ‘고정점’은 화살이 과녁에 박혀 고정되는 지점입니다. 모든 것이 성립하는 자리입니다. 목표와 과업이 우리를 몰아붙일 때, 의지의 행동이나 어떤 내적 반응으로 용기가 생성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음... 어찌면요. 확실히 인간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근원을 제시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홀로 서 있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본문은 그에게—그리고 우리에게—그렇지 않다고 상기시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여호수아 1:5, NRSV).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임재—그것이 용기의 시작입니다. 지도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용기는 미지의 미래 앞에서도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여호수아서 본문에 용기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여호수아 1:7, NRSV). 순종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록화된 법조문과 절차에 대한 노예적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명 안에 던져진 하나님 백성의 비전에 대한 관계적 앎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율법을 묵상하여 몸에 익히라고 권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일부가 되어, 글로 쓰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시는 분을 따르기 때문에 행동하고, 인도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여호수아가 인도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이 ‘준비시키심’은 에베소서의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주석이 각 갑주의 요소를 설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용기 있게 인도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나열된 대부분의 갑주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어려운 날들에 믿음을 붙들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또한 앞에 놓인 일이 단지 우리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임을 상기시키는 장치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고, kin-dom—믿음과 교제의 공동체—을 만들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우리 자신을 넘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용기 있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용 도구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만 언급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흥미롭게도 그는 그것에 두 겹의 이름을 붙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일으킬 위험을 예감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경을 ‘사람을 상처 내기 위한 무기’처럼 휘두릅니다. 사람을 배어 넘어뜨리고, 적을 파괴하는 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부터 시작합니다. 검을 휘두르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베어낼’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환대하고 품으며, 말씀으로 빚어진 백성의 교제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일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로운 길을 찾아 용기 있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새로운 자리와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용기 있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분을 겸손히 따르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인도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감독들은 지역교회 안에서만, 지역공동체 안에서만 용기 있는 리더십을 생각하지 말고, 세계적 시야, 구조적 시야로 용기 있게 인도하는 것을 상상하라고 도전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비전을 품고, 예배와 영적 훈련이 우리 주변 세계로 뻗어나가 부정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끊고, 압제 받는 자를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게 하라고 권합니다(이사야 58:6, NRSV).

높고 어려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늘 해 오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의 시작부터 당대의 억압적 구조를 도전했고, 산업화와 불공정하고 지속 불가능한 노동 관행으로 인해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늘 개인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세례 서약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악과 불의와 억압을 거부하고 맞서겠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용기 있게 인도한다는 것은, 이 서약이 단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권세들을 도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다른 이들이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특히 그 자리에서—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려는 우리의 용기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더 밝게 빛나, 우리가 더 담대하게 사랑하고, 더 기쁘게 섬기며, 더 용기 있게 인도하도록 말입니다.

설교 사역 디렉터인 데릭 웨버 목사는 인디애나, 아칸소, 영국 감리교회에서 목회했으며,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설교학 및 미디어로 박사 (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20년 이상 신학교와 연회 사역 현장에서 설교를 가르쳐 왔습니다.

제5주 | 5월 10일—용기 있게 인도하라

음악 노트

초점 본문: 여호수아 1:5~9, 에베소서 6:10~18

주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힘과 용기; 믿음 안에서 인도하기

전통 찬송가

-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UMH 127)
-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 (God of Grace and God of Glory, UMH 577)
- 앞서 가시는 영원한 왕 (Lead On, O King Eternal, UMH 580)

TFWS / Worship and Song (W&S)

-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네 (Siyahamba, TFWS 2235-b)
- 주의 은혜 충분하네 (Your Grace Is Enough, W&S 3106)
- 나 주님을 믿네 (I Will Trust in the Lord, UMH 464)

흑인 영가 및 복음성가 / Gospel

- 나를 인도하소서 (Guide My Feet, TFWS 2208)
- 우리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네 (We've Come This Far by Faith)
- 완전한 찬양 (Total Praise - Richard Smallwood)
- 주 예수 나와 함께 하소서 I Want Jesus to Walk with Me (UMH 521)

글로벌 찬양

- 나를 보내소서 (Thuma Mina - 남아프리카 공화국)
- 풍랑이 일 때 (나와 함께 하소서) (Stand by Me, UMH 512)
- 뒤집히는 세상의 노래(마리아의 찬가)/ 아일랜드 전통 선율 (Canticle of Turning (Magnificat) - Rory Cooney/ Irish traditional)
- 그리스도 나의 빛 (Christ Be Our Light - 영국)

Songs of Zion (SOZ) 수록곡

- 우리는 믿음으로 왔네 (We've Come This Far by Faith, SOZ 192)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SOZ 53)

현대 예배곡 (CCLI)

- 주 날 물 위로 부르셨네 (Oceans - Hillsong UNITED)
- 불 가운데 있을 때 (Another in the Fire - Hillsong UNITED)
- 전쟁은 주의 것 (Battle Belongs - Phil Wickham)
- 주만이 내 반석 (Cornerstone - Hillsong Worship)

초점 본문: 여호수아 1:5~9, 에베소서 6:10~18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에, 우리는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이웃, 모든 피조물의 번영을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기에, 우리는 용기 있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Written by Dr. Lisa Hancock, Discipleship Ministries, January 2026.

개회 기도

신비와 권능의 거룩하신 주님,
하늘 위나 땅 아래 주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은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언약과 신실한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거룩한 처소에 언약궤를 들여놓았을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소서.

우리 삶과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에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멘.

Adapted from The Abingdon Worship Annual 2009, © 2008 Abingdon Press. Reposted on the re:Worship blog at <https://re-worship.blogspot.com/2012/08/opening-prayer-proper-16-b.html>.

고백의 기도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

다.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알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우리 마음에 부어 주소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기도)

용서의 확신

이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방황할 때조차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Adapted from Beth Merrill Neel on her blog, "Hold Fast to What Is Good." Used with permission. <https://holdfasttowhatisgood.com/liturgy/prayer-of-confession>.

파송의 말씀

이웃의 필요를 알아채는 지혜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깨닫는 영감, 모든 피조물의 정의와 번영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5주 | 5월 10일—용기 있게 인도하라

봉헌 기도

초점 본문: 여호수아 1:5~9, 에베소서 6:10~18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불확실한 계절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겠다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용기를 연습합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빛의 갑옷을 입었듯이, 우리도 담대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손에 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를 사용하여 정의와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옷을 입히시고 평화로 지켜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앞장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제5주 | 5월 10일—용기 있게 인도하라

어린이 메시지

초점 본문: 여호수아 1:5~9, 에베소서 6:10~18

핵심 부사: 용기 있게

준비물

종이로 만든 전신 갑주 모형(방패, 허리띠, 신발 등)

메시지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저래라 시키는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오히려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아주 큰 임무를 맡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야 했거든요. 우리도 가끔 그렇듯이 여호수아도 조금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어요. 바로 오늘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 배울 거예요. 여기에는 진리, 믿음, 평화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갑주들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용감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 있는 리더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용기 있는. 용기 있게. 우리는 방금 오늘의 부사를 발견했어요.

‘용기 있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부사예요. 따라 해 볼까요? “용기 있게!” (아이들이 단어를 따라 하게 합니다.) 부사는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고 했죠? 오늘의 부사는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우리가 용기 있게 인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용기 있고 강해질 수 있어요.

용기 있게 인도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 힘들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
- 무서운 마음이 들어도 용기를 내보는 것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앞장서는 것
- 괴로움을 당하는 친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것
-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 우리 다 같이 ‘슈퍼히어로’ 포즈를 취해 볼까요? 발을 벌리고, 어깨를 펴고, 손은 허리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처럼 서 보세요! (아이들이 포즈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감하게 만드셨어!” 포즈예요.

이제 연습해 봐요! 여기 갑주 조각들이 있어요. 방패, 허리띠, 신발이에요. 하나를 골라보거나 상상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용기 있게 행동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평화의 복음 신발’은 어떨까요? (대답을 기다려 주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몸으로 보여주세요.

- 친구가 게임에서 소외당하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 “우리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동작을 취합니다.)

- 누군가 장난감을 쏟았어요. 먼저 다가가서 치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돕는 동작을 취합니다.)
- 친구가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너무 떨려 하고 있어요. 손을 흔들어주거나 “힘내!”라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응원하는 동작을 취합니다.)

정말 멋져요! 우리의 손과 목소리, 마음으로 용기 있게 인도하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답니다. 다시 한번 슈퍼히어로 포즈를 취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걸 기억해요! (아이들이 포즈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나는 용기 있게 인도할 수 있어요!”

이제, 축복 기도로 마칩시다.

축복 기도

두 손을 모아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담대하게 사랑하게 하시길 빕니다.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여러분을 격려하여 기쁘게 섬기게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 용기 있게 이끌게 하시길 빕니다. 담대하게 사랑하십시오. 기쁘게 섬기십시오. 용기 있게 이끄십시오. 아멘.

주간 활동: 가족 대화 안내와 활동

이 질문과 활동들은 가족들이 한 주간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일에 나누었던 어린이 설교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더욱 굳건히 세웁니다. 식탁에서, 차 안에서, 잠들기 전 — 가족이 함께하는 어떤 순간이든 활용해 보세요.

내용은 단순하고 짧으며, 열린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일상의 순간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주일에만이 아니라 한 주 내내 이어지는 것임을 가족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주제: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용기를 주십니다.

핵심 부사: 용기 있게

대화 나누기

- 오늘 여러분이 한 일 중 가장 ‘용기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 이번 주에 우리 가족 중 누가 용기 있게 행동했나요? (서로 칭찬해 주세요.)
- 용기 내기 힘든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 무엇이 도움이 되나요?
- 용기가 필요한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가족 활동

1. 용기 찾기 탐험

집 안을 돌아다니며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 먼저 앞장서야 할 때.
- 누군가를 도와줄 때.
- 다정하게 말을 건넬 때.

2. 용기 포즈 챌린지

가족이 다 함께 슈퍼히어로 포즈로 서 보세요.

함께 외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나는 용기 있게 인도할 수 있다!”

이번 주에 용기가 필요한 순간마다 이 포즈를 취하며 서로 응원해 주세요.

3. 종이 전신 갑주 만들기

종이로 방패, 허리띠, 신발 등을 만들고 스티커나 색연필로 꾸며보세요. 용기 있게 리더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제5주 | 5월 10일—용기 있게 인도하라

청소년 메시지

초점 본문: 여호수아 1:5~9, 에베소서 6:10~18

인도자를 위한 안내

이 수업은 지배력이나 확실성, 또는 지위가 없어도 용기 있게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합니다. 마음 열기는 빠르고 유쾌한 추리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영향력과 관심에 부담 없는 방식으로 웃고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를 둔 용기와 힘에 관한 성경을 읽은 후, 학생들은 용기 있는 리더십이 어떻게 종종 겸손, 경청, 책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지 토의합니다. 촉감 활동에서 학생들은 함께 구조물을 만들고 변화에 맞춰 조정하면서, 용기 있게 인도하기는 주도권을 잡고 지휘하는 것보다 상황이 바뀔 때 함께 대응하는 것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준비물

구조물을 만들 재료 (블록, 레고, 종이, 파이프 클리너 등 다양한 재료)

마음 열기

10분 리더를 따라... 아니면 말고

학생들이 원을 이루어 앉거나 서게 하십시오. 한 명의 자원자를 뽑아 잠시 방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가 있는 동안, 원 안의 한 사람을 조용히 “리더”로 정합니다.

리더는 발 톡톡 치기, 손 비비기, 고개 끄덕이기, 자세 바꾸기 같은 작고 미묘한 동작을 시작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누가 누구를 따라 하는지 눈에 띄지 않게, 가능한 한 빠르게 그 동작을 따라 해야 합니다.

자원자를 다시 방으로 들이십시오. 자원자는 가운데에 서서, 그룹이 계속 동작을 따라 하는 동안 누가 리더인지 찾아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자원자에게는 최대 세 번 추측 기회를 줍니다.

한 라운드가 끝난 뒤 간단히 묻습니다.

- 예상보다 리더를 알아맞히기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 무엇이 그걸 어렵게 만들었나요?

성경 읽기

5분 읽기: 여호수아 1:5~9, 에베소서 6:10~18

토의 질문

10분

- 이 본문들에서 어떤 단어 또는 이미지가 가장 눈에 띄었나요?
- 이 성경 구절들은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나요?
- 용기가 통제보다는 신뢰와 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나요?
-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 조용하고, 겸손하거나, 책임을 나누는 리더십을 본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나눠 보세요.
- 담대하게 사랑하기와 기쁘게 섬기기는 용기 있게 인도하기를 어떻게 뒷받침하나요?
- 여러분 또래에게 용기 있게 인도하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험 활동

20분 세우고 조정하기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간단한 건축 재료 세트를 줍니다. 과제는 5분 안에 가능한 높이 자립형 구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활동 중간에 잠시 멈추게 하고, 조건을 하나 바꿉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사람은 뒤로 물러나 더 이상 재료를 만지지 못한다.
- 구조물은 이제 책상이나 바닥을 가볍게 흔들어도 버텨야 한다.
- 그룹이 함께 정하는 새로운 규칙을 하나 추가해야 한다.

이제 그룹들은 새로운 조건 아래 건축을 계속합니다. 시간이 끝나면, 각 그룹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방 안을 둘러보며 관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줄자로 각 구조물의 높이를 측정하게 하십시오. 용기 있는 리더십은 지배나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할 때 경청하고, 조정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하십시오.

성찰 질문 (활동용)

- 조건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 그룹 안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 조정 과정에서 누가 리더했나요? 그 리더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 이 활동은 따르는 사람들로서 용기 있게 이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나요?

기도

5분 여러분 그룹의 전통이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모임을 마치십시오.

제5주 | 5월 10일—용기 있게 인도하라

소그룹

초점 본문: 여호수아 1:5~9, 에베소서 6:10~18

교제

다과 또는 식사 (다과가 있으면 10분; 식사가 있으면 더 길게)

모임 준비 시간 (5~10분)

다음은 나누며 모임의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가 탐구하는 마지막 부사는 ‘용기 있게’이며, 이것은 ‘인도함’과 결합합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한두 사람과 짝을 이루어 ‘누군가가 보여 준 용기가 그 상황에 영향을 미쳤던 순간’을 나누어 봅시다.”

그룹 대화 (약 30분)

아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수아 1:5~9, 이사야 58:6~10, 시편 27:1~3, 14, 에베소서 6:10~18

- 여호수아 1장 5~9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 그 뒤를 이은 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같은 권면을 세 번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6, 7, 9절, NRSVUE). 이 세 번의 격려마다 무엇이 연결되어 있나요? [먼저 참여자들이 각 반복 구절과 함께 나오는 내용을 찾아 말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아래 표의 내용을 공유하십시오.]

구절	연결성	시간적 관점	주제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네가 이 백성에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짐)	과거	하나님은 땅에 관한 약속을 지키신다.
“강하고 매우 담대하라” (7절)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삼가...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요 네가 성공하리라.”	현재	율법책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하느니라.”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한다.

- »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세 번 듣는 여호수아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약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순한 ‘기운 내라’ 식의 격려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요구가 매우 큰 미래를 향해, 현재의 그를 붙들며 세우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일을 앞두고, 누군가의 격려로 방향을 잡고 힘을 얻은 경험이 있나요?
- » 마지막 격려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시겠다고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해 왔나요?
- 이사야 58장 6~10절을 읽으십시오. 금식이라는 영적 훈련이 불의의 결박을 끊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금식은 무엇이라고 이해되나요? 그것이 용기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 에베소서 6장 10~18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준비됨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 갑주의 요소들 가운데 방어적인 것은 몇 개이고 공격적인 것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 » 이 “갑주”의 요소들은 오늘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어떻게 준비시켜 주나요?
 - » 여러분 삶에서 특별히 경험하고 싶은 “갑주의 한 요소”가 있나요? 왜 그렇나요?
- 이번 주 설교 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이름/설명을 붙인 것이 흥미롭다. 마치 이것이 불러올 문제를 예감한 듯하다. 어쩌면 그는 사람들이 성경을 상처 주고, 사람을 배어 넘어뜨리고, 원수를 파괴하기 위한 무기처럼 휘두르는 모습을 내다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무기’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한다. 검을 휘두르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다.”

 - » 성령이 “검을 휘두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검을 휘두르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성령께서 휘두르시도록) 작동하나요?
- 시편 27편 1~3, 14장을 읽으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용기의 근원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 ‘용기의 확언’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구절을 적어 두어도 좋습니다.
- 오늘의 나눔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리더십과 용기를 어떻게 연결하나요?
- **딱 한 가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용기 있게 인도한다는 의미를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개인 심화 묵상:** 이번 주에는 아래의 패턴으로 선택 본문 중 하나를 공부해 보십시오.
 - »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시편 119:18).
 - » 본문(여호수아 1:5~9, 이사야 58:6~10, 시편 27:1~3, 14, 또는 에베소서 6:10~18)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 » 본문에서 무엇이 눈에 띄나요?
 - » 어떤 질문이 떠오르나요?
 - »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나요?

기도 (10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황에 맞게 함께 기도합니다.

파송 (2분) 다음 기도, 또는 이와 비슷한 기도, 혹은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격려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무장 시키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둘러싸 주시며, 주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평화의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빚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빚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신실하게 걸어가며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 훈련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https://www.umcdiscipleship.org/subscribe>

애슐리 앨리 크로포드(Rev. Dr. Ashlee Alley Crawford) 박사는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장년 사역 담당 디렉터이며,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 소속 목사입니다.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에서 12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섬겼고, 10년 이상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고 격려하는 일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즈베리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으며, 제자사역부(Discipleship Ministries)의 제자 코칭(Discipleship Coaching)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6주 | 5월 17일—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기적의 주일 (MIRACLE SUNDAY)

기획 노트

초점 본문: 시편 96편, 로마서 12:1~8, 마태복음 28:16~20

오늘의 본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있는 산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모두가 하나의 질문 앞에 긴장한 채 서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가라”입니다.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저자 의역). 부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기적의 주일에 우리는 연대주의로 연결된 전 역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신학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 시리즈 내내 주간 “제자도로의 부름”은 회중이 지역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맥락에서 제자도를 어떻게 살아낼지 발견하도록 격려해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부름을 세계적 규모로 확장할 길을 찾아보십시오. 연합감리교회의 신학 교육 기금(The Endowment for Theological Education)이 어떤 영향을 만들어 왔는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에서 불리는 찬송들을 노래하십시오. 연합감리교회 전 지역에 연결된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연결적(connectional) 성격을 선포하며, 회중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십시오. 이 제자도의 여정에서 우리의 힘은 함께함에 있습니다.

기적의 주일 봉헌을 드릴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의식으로 만들기를 권합니다. 회중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애창 찬송 중 하나를 부르거나, 생기와 에너지가 가득한 새 노래를 가르쳐 보십시오. 단지 앉아서 음악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는 공동체적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봉헌을 마친 후에는 연합감리교회 전체에서 드러지는 선물들과, 그 선물들이 가능하게 할 사역 위에 특별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변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 선물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제자도로의 부름

이번 주에는 기도에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부르시는지,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제자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라고 부르시는지 보여 달라고 구하십시오. 기도 중에 알아차린 것을 신뢰하는 친구나 목회자와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시는 일을 가서 행하기 위해, 여러분이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리사 핸콕(Lisa Hancock) 박사는 예배 예술 사역(Worship Arts Ministries) 디렉터로서, 과거 북서텍사스연회와 북텍사스연회(현 통합 전 연회) 소속 연합감리교회들에서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퍼킨스신학대학원(Perkins School of Theology)에서 예배 음악 석사(Master of Sacred Music)와 신학 석사(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학위를 받은 뒤, 남감리교대학교(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리스도론, 장애(disability), 속죄론(atonement)을 주제로 연구하고 집필했습니다. 또한 “Growing in Grace: Accessible Worship for All God’s Children”(은혜 안에서 자라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예배) 이니셔티브의 공동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6주 | 5월 17일—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기적의 주일 (MIRACLE SUNDAY)

설교 노트

초점 본문: 시편 96편, 로마서 12:1~8, 마태복음 28:16~20

마침내 우리는 대위임령, “가라”는 부름 앞에 섰습니다—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라는 부름입니다. 교회 전체를 위한 우리의 과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이 명령이 주어진 맥락을 바라봅시다.

예를 들어 본문 끝으로 먼저 가 봅시다. 마지막 말씀은 중요하고 위로가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20). 참 좋은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반된 정서—태도—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말은 “열한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서술 같지만, 새로운 현실을 말합니다. 3년 동안 그들은 열둘이었습니다. 아니 열둘 플러스였지요. 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하나입니다. 열정은 그리스도만의 경험 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삶들을 건드려 파문을 일으켰고, 존재의 질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은 남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강조합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장면을 말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설령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 해도—왜 그렇지 않겠습니까?—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지막 대위임령을 듣기 전에도,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우연히, 해마다 ‘운 좋게’ 예수께서 원하시던 장소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있습니다. 예배와 의심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예배는 확신, 의지, 선택, 헌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의심은 그 반대처럼 보입니다. 예배를 막고, 길가에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못’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하지 않았기에 예배했고, 어떤 이들은 의심했기에 예배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게 그나마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 그들도 일단 예배 자리에 앉긴 했지만, 의심했으니 예배는 못 드렸겠지.”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주는 첫 번째 함의는, 우리의 의심을 변명거리로 삼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입 밖에 내지는 못해도—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대면하여 본다면 의심이 사라질 텐데.” 우리는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손을 만졌던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내게도 그런 선물이 있었다면 의심 따위 없었을 텐데.” 그런데 17절은 말합니다. 그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요. 그들은 예수를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여전히 어떤 이들은 의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구절을 번역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some”(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번역자가 덧붙인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some”이 제자들 일부를 가리킨다고 단정해 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의심했다.” 그러나 이렇게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했다—그들 모두가 예배했다—그러나 어떤 의심이 있었다.” 예배자들 안에, 위임받고 가려던 이들 안에, 여전히 어떤 의심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은 신앙이나 예배의 반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은 예배의 인간적 측면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인간적 측면은 이런 인정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내 찬양의 모든 함의가 무엇인지는 다 모른다.” “평화를 위해 드린 기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음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확신이 없다.” “무엇이 요구되는지조차, 누가 요구하시는지조차 분명치 않은 순간이 있다.” 의심은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장면들이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는 깨달음, 내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반대입니까? 아마 그렇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만유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의 임재 앞에 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영원한 말씀의 이름을 부른다면, 인간의 이해력과 상상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예배하면서 의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핵심은 의심이 섬김의 의지를 결정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심 중 일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그들이 궁금해하는 줄 아시고—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공동체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이제 알겠다.” 그런데 정말 알았을까요? 사도행전은 그들이 여전히 다 보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설마 모든 민족을 말한 건 아니겠지?”—그들은 아직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중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과업에 전부를 드리라. 로마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를,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일부’가 아니라 ‘각자 전부’를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바울은 문자 그대로 말합니다. 몸을, 존재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 예배를 위해, 변화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위해. 그리고 세상이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방식으로 섬기라—대가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생각은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사들을 나누고 내어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 웃음을 위해, 눈물을 위해 우리 은사를 내어줍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함께 섬깁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자랍니다. 함께 노래하고 예배하며, 함께 떡을 떼고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놀라울 만큼 깊은 방식으로 서로의 삶을 열어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할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예수께서 사역 내내 보여주신 ‘공동체로 사는 비전’을 살아내려는 개인과 작은 무리가 만들어 내는 파문으로 말입니다.

“사려 깊고 헌신적인 소수의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실제로 세상을 바꿔 온 유일한 힘은 바로 그것이다.”

— 마거릿 미드 (Margaret Mead)

이 말이 실제로 미드의 정확한 인용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시작했던 “예배하는 의심자들” 혹은 “의심하는 예배자들”의 전통 위에선, 예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로, 초대와 포용의 복음으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시편 96편이 말하는 “새 노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노래를 열방과 온 피조물에 부를 때에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만큼 살아낼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방식으로 노래할 때만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어디로든지 기꺼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포용과 은혜의 새 노래를 부를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모든 모퉁이에서, 모든 문화와 언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제적 신학 교육 기금—새 노래를 부를 ‘노래하는 이들’을 훈련하고자 하는 기금—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의 주일”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드리지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봉헌의 열매가 격려하고 가능하게 할 변혁의 기적들이 파문처럼 번져 갈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새 노래를 부릅시다.

설교 사역 디렉터인 데릭 웨버 목사는 인디애나, 아칸소, 영국 감리교회에서 목회했으며,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설교학 및 미디어로 박사 (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20년 이상 신학교와 연회 사역 현장에서 설교를 가르쳐 왔습니다.

제6주 | 5월 17일—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기적의 주일 (MIRACLE SUNDAY)

음악 노트

초점 본문: 시편 96편, 로마서 12:1~8, 마태복음 28:16~20

주제: 성령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통 찬송가

- 만 입이 내게 있으면 (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UMH 57)
- 나의 생명 드리니 (Take My Life, and Let It Be, UMH 399)
- 사랑의 은사 (The Gift of Love, UMH 408)
-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Lord, UMH 593)
- 우리는 교회 (We Are the Church, UMH 558)
- 가서 제자 삼으라 (Go, Make of All Disciples, UMH 571)

TFWS / W&S / UMH

- 많은 은사, 한 성령 (Many Gifts, One Spirit, UMH 114)
- 주 나라 임하게 하소서 (Bring Forth the Kingdom, TFWS 2190)
- 온 세계 지으신 (God of Wonders, W&S 3034)
- 흑인 영가 및 복음성가
- 완전한 찬양 (Total Praise - Richard Smallwood)

글로벌 찬양

- 하나님께 노래하라 (Cantemos al Señor, UMH 149)
- 할레 할레 할렐루야 (Halle, Halle, Hallelujah, TFWS 2026)

Songs of Zion (SOZ) 수록곡

- 우리는 믿음으로 왔네 (We've Come This Far by Faith, SOZ 192)
- 참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SOZ 231)

현대 예배곡 (CCLI)

- 이 땅에 주 나라 임하도록 (Build Your Kingdom Here - Rend Collective)
- 이 도시의 하나님 (God of This City - Chris Tomlin)
- 축복 (The Blessing - Elevation Worship)
- 길을 만드시는 분 (Way Maker - Sinach)

제6주 | 5월 17일—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기적의 주일 (MIRACLE SUNDAY)

예식 자료

초점 본문: 시편 96편, 로마서 12:1~8, 마태복음 28:16~20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왜 모였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이웃과 자신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인도함 속에 우리는 결코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 전 세계적인 연대 속에서 담대하게 사
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
니다. 아멘.

Written by Dr. Lisa Hancock, Discipleship Ministries, January 2026.

개회 기도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 주님께 경배와 감사를,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dapted from Opening Prayer: Proper 16A on the re:Worship blog
at <https://re-worship.blogspot.com/2011/08/opening-prayer-proper-16a.html>.*

고백의 기도

(다 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고, 주님의 법을 어겼으며,
주님의 사랑에 거역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
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침묵으로 고백하는 기도)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Adapted from "A Service of Word and Table I," in The United Meth
odist Book of Worship. Copyright © 1972,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Copyright © 1980, 1985, 1989, 1992 UMPH.*

기적의 주일 축복 기도

넉넉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지역 사회와 전 세계의 연대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주일’ 예물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나눔이 배가 되게 하시고
목회 사역으로 부름받은 전 세계의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준비시키는 일에 쓰이게 하소서.
그들이 받는 교육이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Written by Dr. Lisa Hancock, Discipleship Ministries, January 2026.

파송의 말씀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할 수 있
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안고 세상으로 나
아가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Written by Dr. Lisa Hancock, Discipleship Ministries, January 2026.

제6주 | 5월 17일—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기적의 주일 (MIRACLE SUNDAY)

봉헌 기도

초점 본문: 시편 96편, 로마서 12:1~8, 마태복음 28:16~20

사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여, 주님은 예배와 의심이 같은 자리에 머무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확신에 차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자신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질문과 용기, 두려움과 소망을 모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제자를 양성하고, 겸손히 가르치며, 기쁨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 닿는 은혜의 찬양을 나누는 일에 쓰이게 하소서.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소서. 이 봉헌이 주님을 향한 증언과 환대가 되어,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사랑이 알려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며 세상이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28:16~20)

제6주 | 5월 17일—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기적의 주일 (MIRACLE SUNDAY)

어린이 메시지

초점 본문: 시편 96편, 로마서 12:1~8, 마태복음 28:16~20

핵심 부사: 담대하게

준비물

지구본 또는 세계지도, 지도에 붙일 작은 스티커나 종이 하트, 장난감 확성기 또는 ‘미션 두루마리’

메시지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과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 지구본(혹은 지도)을 보세요! 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곳과 사람들이 정말 많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은 아주 큰 임무예요! 때로는 조금 무섭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특별한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줘요. 바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선물(은사)이 있다고 알려줘요. 어떤 친구는 잘 가르치고, 어떤 친구는 잘 도와주며,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죠. 우리가 이 선물들을 사용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록 낯설고 새로운 일일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나의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재미있는 활동을 해봐요. 여기 지구본과 스티커(또는 종이 하트들)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곳,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는 곳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스티커를 붙이면서, 여러분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지구본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와! 여러분 덕분에 지구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모습이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확성기나 미션 두루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을 따라 크게 외쳐볼까요?

“나는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아이들이 따라 합니다.)

축복 기도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것처럼 두 손을 모아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담대하게 사랑하게 하시길 빕니다.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여러분을 격려하여 기쁘게 섬기게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주시길 빕니다.

담대하게 사랑하십시오. 기쁘게 섬기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간 활동: 가족 대화 안내와 활동

이 질문과 활동들은 가족들이 한 주간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일에 나누었던 어린이 설교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더욱 굳건히 세워 줍니다. 식탁에서, 차 안에서, 잠들기 전 — 가족이 함께하는 어떤 순간이든 활용해 보세요.

내용은 단순하고 짧으며, 열린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일상의 순간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주일에만이 아니라 한 주 내내 이어지는 것임을 가족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주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핵심 부사: 담대하게

대화 나누기

-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방법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 우리 주변이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모습이 보이나요?
- 새롭거나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돕도록 나에게 주신 선물(재능)은 무엇인가요?

가족 활동

1. 세계 지도에 스티커 붙이기
 - 식탁이나 벽에 세계 지도를 붙여두세요.
 - 가족들이 돌아가며 기도하고 싶은 나라나 지역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는 멀리 있는 곳까지,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2. 담대한 모험 산책 시작하기
 - 가족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면서 담대하게 사랑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웃에게 밝게 인사하기, 떨어진 쓰레기 줍기, 도움이 필요한 친구 살펴보기 등 용기 있게 나눌 기회를 찾아보세요.
 -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방법임을 이야기해 보세요.

3. 미션 완성기 또는 두루마리 만들기

- 종이를 말아 완성기나 두루마리를 만들어 보세요.
- 각 가족 구성원이 이번 주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돕기 위해 실천할 ‘담대한 미션’을 하나씩 적거나 외쳐보세요.
- 이 두루마리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한 주 동안 기억하세요.

이번 주의 기도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용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제6주 | 5월 17일—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기적의 주일 (MIRACLE SUNDAY)

청소년 메시지

초점 본문: 시편 96편, 로마서 12:1~8, 마태복음 28:16~20

인도자를 위한 안내

이 수업은 “가라”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참여하라는 초대에 초점을 둡니다. 마음 열기는 유쾌하고 빠른 게임을 통해, 완벽함보다 함께 움직이고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몸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보냄을 받고 은사를 사용하는 내용의 성경 본문을 읽은 후, 학생들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토의합니다. 활동 단계에서 학생들은 방 안을 이동하며 변화가 필요한 세상의 다양한 영역을 탐색하면서,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 사명 안에 머물면서도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준비물

- 마음 열기용 동전, 토큰, 작고 동일한 물건 (학생 1인당 1개)
- 단어가 하나씩 적힌 종이 또는 전지 (스테이션당 1장)
- 스테이션 표지를 붙일 테이프
- 스테이션마다 비치할 마커
- 스테이션마다 비치할 포스트잇 (가능하면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

마음 열기

10분

각 학생에게 동전, 토큰, 또는 작은 물건을 하나씩 나눠 줍니다. 학생들이 원을 이루어 서거나 앉게 하십시오. 목표는 모든 물건을 가능한 한 빠르게 원을 따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물건을 전달할 때, 다음 사람에게 건네며 이 물건이 무엇인지 말해야 합니다. 물론 반전이 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자가 간단한 규칙을 계속 외칠 것입니다. 한 명을 첫 수령자로 정해 그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며 게임을 시작하십시오. 가끔 다른 학생들에게도 새 물건을 건네어 게임을 계속 이어 가십시오.

규칙 예시

- 주로 쓰지 않는 손(약손)으로 전달하기
- 한 사람을 건너뛰고 전달하기
- 전달하는 내내 눈을 맞추며 전달하기
- 왼쪽으로 전달하기
- 원 반대편 사람에게 던져서 전달하기
- 눈을 감고 전달하기

약 1분 동안 혼란 속에서 웃게 두었다가 멈추고, 한 가지 짧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물건을 계속 전달하도록 도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성경 읽기

5분 읽기: 시편 96편, 로마서 12:1~8, 마태복음 28:16~20

토의 질문

10분

- 로마서는 서로 다른 은사들이 함께 작동하는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 이 본문들은 ‘보냄 받음’ 또는 ‘세상으로 나아감’에 대해 무엇을 말하나요?
-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에서 어떤 점이 설레거나 기대되나요?
- 어떤 점이 벅차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나요?
-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 보내신다고 생각하나요?
- 여러분 주변에서 작은 행동이 이미 차이를 만들어 내는 모습을 어디에서 보나요?
-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체험 활동

20분 가라, 보내라

실내에 넓게 비어 있는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벽에 한 단어씩 적힌 표지판이나 종이를 붙여 여러 개의 스테이션을 만드십시오.(아래 예시 참고). 스테이션마다 다양한 색상의 포스트잇과 마커도 비치합니다. 이 단어들은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식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용할 단어 예시

- 치유 (Healing)
- 정의 (Justice)
- 긍휼/자비 (Compassion)
- 배움 (Learning)
- 평화 (Peace)
- 소속감 (Belonging)
- 소망 (Hope)
- 용기 (Courage)

각 스테이션은 세상에서 변화가 필요한 자리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십시오.

학생들이 방 안을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출발”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거나 시급하게 느껴지는 단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누군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상징하는 단어나 상징을 포스트잇에 적거나 그리게 합니다. 그 포스트잇을 표지판 주변 벽에 붙이게 하십시오.

나눔 후에 다시 “출발”이라고 외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또 다른 단어로 이동하게 하십시오. 2~3라운드 반복합니다.

제자들은 많은 곳으로, 많은 은사를 가지고 보내지지만, 언제나 함께라는 사실을 말하며 마무리하십시오.

성찰 질문 (활동용)

- 어떤 단어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겼는지 무엇을 알아차렸나요?
- 한 곳만 선택하는 대신 여러 번 이동해 보니 기분이 어땠나요?
- 제자들이 어떻게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기도

5분 여러분 그룹의 전통이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모임을 마치십시오.

제6주 | 5월 17일—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기적의 주일 (MIRACLE SUNDAY)

소그룹

초점 본문: 시편 96편, 로마서 12:1~8, 마태복음 28:16~20

교제

다과 또는 식사 (다과가 있으면 10분; 식사가 있으면 더 길게)

모임 준비 시간 (5~10분)

참여자들을 2~3명씩 소그룹으로 나누고 다음을 질문합니다. “1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에서(1점이 최저, 10점이 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얼마나 믿고 있나요? 왜 그 점수를 주었나요?”

그룹 대화 (약 30분) 아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본문을 읽습니다: 시편 96편, 로마서 12:1~8, 마태복음 28:16~20

- 마태복음 28장 16~20절을 읽으십시오. 이 본문에서 믿음과 의심이 나란히 놓입니다.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17절, NRSVUE).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 » 우리가 흔히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이라 부르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확언을 찾아보세요.
 - » 이 본문은 예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 »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돌보고 의심을 거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 로마서 12장 1~8절을 읽으십시오.
 - » 이 본문은 예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 » 2절을 다시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나요? 왜 이것은 탐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일까요?
 - » 이 본문은 여러 영적 은사를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서 그런 은사를 보나요? 자신에게서도 보나요? 그 은사들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사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시편 96편을 읽으십시오.
 - » 이 시편에 나타난 예배의 말(선포)이나 행위는 무엇인가요?
 - » 시편 96편은 “온 땅”과 “열방” 그리고 “만민”에게 찬양의 노래를 부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시편은 땅 자체(바다, 들, 숲 등)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이 보여 주는 예배의 ‘규모’ (크기, 범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이번 주 설교 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대위임령, ‘가라’는 부름 앞에 섰습니다—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라는 부름입니다. 교회 전체를 위한 우리의 과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 명령이 주어진 맥락을 바라봅시다. 예를 들어 끝으로 가 봅시다. 마지막 말씀은 중요하고 위로가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 »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거나 경험하나요?
- 딱 한 가지: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정도를 1~10으로 표시했던 점수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믿음이 성장하고 의심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 개인 심화 묵상: 이번 주에는 아래의 패턴으로 선택 본문 중 하나를 공부해 보십시오.

- »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시편 119:18).
- » 본문(시편 96편, 로마서 12:1~8, 또는 마태복음 28:16~20)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 » 본문에서 무엇이 눈에 띄나요?
- » 어떤 질문이 떠오르나요?
- »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나요?

기도 (10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황에 맞게 함께 기도합니다.

파송 (2분)

다음 기도, 또는 이와 비슷한 기도, 혹은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변화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빚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신실하게 걸어가며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 훈련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https://www.umcdiscipleship.org/subscribe>

애슐리 앨리 크로포드(Rev. Dr. Ashlee Alley Crawford) 박사는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장년 사역 담당 디렉터이며,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 소속 목사입니다. 그레이트플레인스연회에서 12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섬겼고, 10년 이상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고 격려하는 일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즈베리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으며, 제자사역부(Discipleship Ministries)의 제자 코칭(Discipleship Coaching)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